RUSSIA IN&OUT

RIO

2026. 5 | No. 25

특집 기획 기축통화 탄생과 지속의 역사적 조건은 무엇인가?
이슈 진단 베이징 연속 정상회담: 미·중·러 관계의 '공회전'
RIO 초대석 김현국 탐험가, 평화의 길을 찾아 유라시아 대륙을 가다
크렘린 전망대 크렘린의 '액션맨': 푸틴의 이미지 연출 소사
경제 내비게이션 2026년 러시아 에너지 산업 동향과 전망
역사 프리즘 캄킨 서점: 냉전 시대 미국 속 러시아 문화
예술 현장 마곡동 「바냐 삼촌」을 옹호한다
미디어 트렌드 붉은광장에 선 북한군: 손님에서 전우로, 우호에서 동맹으로



ISSN 3091-9371 (Print) | ISSN 3091-9487 (Online)

Photo Essay

북방의 베네치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400개가 넘는 다리가 있다. 폰탄카강을 가로지르는 아니치코프 다리가 그중 가장 유명한데, 조각가 표트르 클로트가 제작한 말 조각상이 다리의 네 귀퉁이를 장식하고 있다. '말 길들이기'라고 명명된 네 마리 말 조각 앙상블은 자연의 힘에 맞서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 각기 다른 모양의 이 네 마리 말 조각상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대표적 조형물로 긴 세월 동안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았다. 작품이 완성되기까지는 20년이 걸렸다. 작업 속도가 느려서 그런 건 아니고, 황제 니콜라이 1세가 이 작가의 작품을 유럽 군주들에게 선물하기를 즐겼기 때문이다. 3D 프린터가 없던 시절인지라 조각가는 황제가 주문하는 작품 제작에 우선 시간을 쏟아야 했다. 넵스키대로 위의 이 다리는 1851년 온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사진·글: 콘스탄틴 코코시킨]

발간사

뇌 과학 발전은 경이롭고도 교훈적이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것으로만 알려졌지만, 최근 해마가 수렵 채집인이 먹을 것이 언제 떨어질지 그래서 언제 어디로 갈지를 판단하는 미래 시뮬레이션을 제공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존 오키프와 하워드 아이컨바움은 각각 해마에 장소 세포와 시간 세포가, 모세르 부부는 내후각피질에 시공간 좌표계를 형성하는 육각형 벌집 모양의 격자 세포가 있다는 것을, 다니엘 샤크터는 해마가 기억의 조각을 재조합하여 미래를 시뮬레이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시공을 판별하는 해마가 내후각피질의 격자 지도 위에서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시뮬레이션을 만들면 전전두피질이 생존에 가장 유리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해마가 제공하는 시뮬레이션의 주요 결정 메커니즘은 한계 가치 정리(MVT)이다. 현 위치의 시간당 수확량이 감소해 전체 평균과 같아지면 더 나은 위치로 떠날 준비를 하고, 현재 받는 보상보다 가치가 더 큰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만 보상받기를 연기한다는 것이다. 뇌 과학은 인간이 자기 결정을 고상하게 합리화하나, 기실 처절한 생존 메커니즘에 따를 뿐이라는 민낯을 드러낸다. 정치·예술·종교 등 인간의 어떤 행위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RIO 25호 「예술 현장」은 "인간의 모든 의미와 모든 드라마는 겉으로 드러난 것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세계 희곡사를 바꾼 체호프의 작품 「바냐 삼촌」이 한국에서 어떻게 재창조됐는지를, 「역사 프리즘」은 워싱턴에서 러시아 자료의 독보적인 허브였던 캄킨 서점이 MVT가 작동하는 냉혹한 시장 경쟁에서 어떻게 폐점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한다. 「특집 기획」은 달러 패권의 미래 시뮬레이션을 위해 기축통화의 생명주기를 집단 결정의 역사적 메커니즘을 통해, 「이슈 진단」은 최근 베이징에서 잇따라 열린 미·중, 러·중 정상회담이 사실상 '공회전'으로 끝난 이유를 한계 가치가 임계점 아래로 떨어지면 언제든 결별할 삼국 간의 거래 관계로 설명한다. 「경제 내비게이션」은 중동 분쟁으로 가격은 올랐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물량에 타격을 받은 러시아 석유 산업의 한계 경쟁력을, 「크렘린 전망대」는 지지부진한 전황 속에서 국민의 인내 MVT에 따라 변주하는 푸틴의 몸 정치를 진단한다. 「미디어 트렌드」에서는 러시아 언론의 해마가 만드는 북한에 대한 기억과 미래의 시뮬레이션을, 「RIO 초대석」에서는 유라시아 횡단 도로를 열 차례 횡단하며 우리의 격자 세포에 새로운 시공 좌표를 그리는 탐험가를 소개한다. RIO는 앞으로도 최고의 필진을 통해 러시아와 세계의 미래에 대한 최고의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26년 5월 31일

편집위원회

RUSSIA IN&OUT

RIO 2026년 5월호 No. 25

편집주간 김현택
편집위원 라승도, 박종호, 이대식, 김유정, 이태훈, 임명묵
디 자 인 김지연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1813호
https://rioins.kr
info@rioins.kr

차례

각 차례 제목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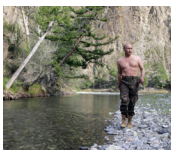
04 | 특집 기획
기축통화 탄생과 지속의 역사적 조건은 무엇인가? 이대식
기축통화의 부상과 퇴조의 역사적 조건을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 간의 역동적 상호 작용 속에 조망하여 현 달러 패권의 위기를 진단하는 틀을 제시한다.



17 | 이슈 진단
베이징 연속 정상회담: 미·중·러 관계의 '공회전' 임명묵
5월 베이징에서 연속적으로 개최된 미·중, 러·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미·중·러 삼각관계의 역학이 어떻게 '공회전'으로 드러났는지 분석한다.



28 | RIO 초대석
김현국 탐험가, 평화의 길을 찾아 유라시아 대륙을 가다 김현택
유라시아 횡단 도로를 10여 차례 답사한 바이커 김현국을 만나, 탐험가의 자세, 도로 네트워크의 중요성, 길 위에서 만난 러시아와 러시아인, 청년 세대의 과제 등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42 | 크렘린 전망대
크렘린의 '액션맨': 푸틴의 이미지 연출 소사 라승도
지난 5월 학창 시절 은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나타난 푸틴 대통령의 이미지 연출을 계기로, 그가 상당 기간 구사해 온 육체적 카리스마의 재현 전략을 핵심 내용 중심으로 되돌아본다.



50 | 경제 내비게이션
2026년 러시아 에너지 산업 동향과 전망 연담린
서방의 전방위적인 제재 국면에서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가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러 에너지 협력의 기회를 모색한다.



59 | 역사 프리즘
캄킨 서점: 냉전 시대 미국 속 러시아 문화 옐레나 마출스카야
러시아 내전 당시 소년 병사였던 빅토르 캄킨이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러시아 서점과 출판사를 세우고 냉전 시대 러시아 문화의 통로를 만들어 간 과정을 따라간다.



71 | 예술 현장
마곡동 「바냐 삼촌」을 옹호한다 백승무
한국인이 사랑하는 체호프의 「바냐 삼촌」(LG아트센터) 공연을 통해 희곡의 특징과 상연 주안점을 검토하고 손상규 연출가의 표현 의도와 기법, 배우 연기의 장단점을 따져본다.



80 | 미디어 트렌드
붉은광장에 선 북한군: 손님에서 전우로, 우호에서 동맹으로 김유정
5월 9일 전승 기념일 열병식에서 이뤄진 북한군 행진을 계기로, 러시아 언론이 러·북 군사 협력을 동맹의 서사로 격상하는 양상과 최근 러시아 내 북한 인식 변화를 짚어본다.

글로벌 기축통화 경쟁을 진단하다

전 세계 지정학적 단층선이 요동치는 가운데 80여년 넘게 굳건하게 전 세계 금융을 독점한 미국의 달러 패권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 연방 부채의 기하급수적 팽창,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BRICS)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탈달러화와 대안적 결제 체계 구축 시도 등은 미국의 기축통화국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실물 경제의 생산성 우위를 재탈환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비트코인의 전략적 준비자산화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을 통해 1970년대에 그랬듯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번 「특집 기획」에서는 글로벌 기축통화의 역사를 조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 단계 미국과 중국 간의 기축통화 경쟁과 그 사이에서 글로벌 초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진단하고자 한다.

연재 순서

1. **기축통화 탄생과 지속의 역사적 조건은 무엇인가?**
2. 미국은 기축통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3. 중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을까?
4. 러시아가 꿈꾸는 글로벌 금융 질서는 무엇일까?

기축통화 탄생과 지속의 역사적 조건은 무엇인가?

이대식 RIO Institute 대표

오늘날 미국은 전례 없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편으로는 수십 년에 걸친 탈산업화와 무역 적자 누적으로 실물 경제의 기초체력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 부채의 기하급수적 팽창, 중국·러시아 등의 탈달러화 움직임, 그리고 브릭스(BRICS) 국가들의 대안적 결제 체계 구축 시도 등으로 기축통화국의 지위 자체가 구조적 도전에 놓여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미국은 두 가지 전략적 돌파구를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첫째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실물 경제의 생산성 우위를 재탈환하는 것이다.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범용 인공지능(AGI)으로 대표되는 AI 혁명은 과거 증기기관, 전기, 반도체가 그러했듯이 전 산업 분야의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잠재력을 지니며, 미국은 이 분야에서 현재 압도적인 기술적 선도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둘째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편입하고,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을 촉진하여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축통화국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이다.

본 글에서는 미국의 이런 이중 전략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역사적 기준

> “기축통화의 흥망성쇠를 관통하는
> 거시 경제적 법칙성을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 간의 상호 관계라는
> 프리즘을 통해 분석”

점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과거 기축통화의 흥망성쇠를 관통하는 거시 경제적 법칙성을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기축통화) 간의 상호 관계라는 프리즘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AI 산업혁명을 통한 실물 경제의 부활과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디지털 기축통화 전략의 연동이 역사적 선례에 비추어 어떤 성공 가능성과 한계를 갖는지 규명하는 것이 본 글의 핵심 목적이다. 특히 본 분석은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 간의 상호 관계를 규정하는 다음 네 가지 핵심 역학에 주목한다.

첫째, 실물 경제의 선행성이다. 역사상 기축통화 지위는 예외 없이 압도적인 실물 경제의 우위, 즉 당대 최고의 기술 혁신, 원가 경쟁력, 무역 네트워크 등이 선행하여 획득됐다.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무역 흑자와 자본 축적을 만들고, 이 경제적 중력이 자국 통화를 글로벌 표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는 명대 중국이 비단과 도자기의 압도적 생산력으로 전 세계 은을 흡수한 것에서, 네덜란드가 해상 무역으로 길더화를 기축통화로 등극시킨 것에서, 미국이 대량 생산 체계로 달러화 패권을 확립한 것에서 일관되게 확인된다. **둘째, 금융 경제의 관성이다.** 일단 확립된 기축통화 지위는 실물 경제가 쇠퇴한 이후에도 금융 인프라의 네트워크 효과, 글로벌 거래 관행, 대안 통화의 부재에 따른 높은 전환 비용 덕분에 수십 년간 지속된다. 레이 달리오(Ray Dalio)는 이를 ‘거대한 순환(Big Cycle)’의 말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며, 국제 무역 결제·외환보유고·원자재 가격 표시 등에 깊이 박혀 있는 기축통화를 교체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에 시장 참여자들은 그 통화의 근본적 약점을 인지하면서도 계속 사용한다고 지적한다.[1] **셋째, 관성의 임계점과 급격한 붕괴다.** 달리오가 특히 강조하는 핵심 통찰은 이 붕괴의 비선형성에 있다. 관성에 의한 시간 연장은 쇠퇴를 완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간에 부채와 구조적 모순이 누적되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자기 강화적 하강 나선에 의해 급격하고 가속적인 붕괴가 나타난다. 제국의 부상은 실물적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점진적 과정을 통해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이뤄지지만, 그 쇠퇴는 부채 위기와 통화 신뢰 상실이 서로를 강화하면서 부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넷째, 가장 결정적인 교훈으로서 실물 경제 이력성(Hysteresis)의 비가역성이다.** 이력성이란 물리학에서 어떤 힘이 가해져 변형된 물체가 그 힘을 제거한 뒤에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경제학에서 이 용어는 생산 기반이 한번 파괴되면 그 원인이 해소된 뒤에도 스스로 복원되지 않는 비가역적 손상을 가리킨다. 상층의 통화 지배력(금융 권력)만으로는 이미 무너진 하층의 실물 경제 지배력을 결코 회생시킬 수 없다. 설비 투자 부재, 제조업 인프라의 해체, 숙련 노동력의 소멸 등은 일단 발생하면 화폐를 무제한 발행(양적 완화)하거나 통화 가치를 대폭 평가절하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손상을 남긴다. 달리오는 이를 ‘쇠퇴의 자기 강화적 순환’이라고 명명한

> “과거 중국의 은 화폐화는
> ‘실물 제조업 경쟁력이 통화 패권을 획득하는 과정’과
> ‘독자적인 통화 통제권이 없는 실물 경쟁력이 외생적 금융 충격에
> 단번에 붕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실증 사례”

다. 실물 경쟁력 약화 → 경상수지 적자 확대 → 부채 증가 → 화폐 발행으로 부채 희석 → 통화 가치 하락 → 국외 자본 이탈 →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 실물 경제 추가 약화의 악순환이 형성되며, 금융적 수단은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실물 생산 역량의 재건 없이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이 네 가지 역학을 중국 송·명·청대의 은 경제, 네덜란드 길더화, 영국 파운드화에서 미국 달러화로의 전이, 그리고 현대 미국 달러 패권의 구축과 유지 과정에 이르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미국이 AI와 디지털 자산을 무기로 시도하는 기축통화 전략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분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 송·명·청대 은 경제의 실물적 부상과 대외 의존 통화의 붕괴

중국의 전근대 은 화폐화 과정은 ‘압도적인 실물 제조업 경쟁력이 어떻게 통화 패권을 획득하는가’를 증명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통화 통제권이 결여된 실물 경쟁력은 외생적 금융 충격 한 번에 어떻게 비가역적으로 붕괴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증 사례다. 많은 역사학자가 오해하는 것과 달리, 중국이 세계 은의 흡수원이 된 것은 은이 먼저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다. 중국은 명·청대 당시 비단, 도자기, 차 등 전 세계가 탐닉하던 고부가가치 가공 제조업 부문에서 절대 우위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압도적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반면, 국내 화폐 제도는 정부의 무분별한 불환지폐(대명보초) 과잉 발행으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신용이 완전히 붕괴한 상태였다. 쑹훙빙(宋鴻兵)의 분석대로 민간 시장은 가치가 급락하는 국가의 가짜 신용 화폐를 거부하고 내재가치가 확실한 실물 자산인 은(Silver)을 거래 매개체로 채택했다.[2] 실물 경제의 선행성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로서, 중국의 압도적인 가공 제조업 경쟁력(실물 경제)은 전 세계의 은을 중국 영토로 강제로 끌어당기는 거대한 중력장으로 작동했다. 당시 중국 내부의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약 1:5.5~1:7 수준이었지만, 유럽에서는 1:12~1:14 수준이었다.[3] 유럽 상인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싼값에 은을 확보한 뒤 중국에 가져가면 두 배 가까운 가치로 비단과 도자기와 교환할 수 있었다. 이 가공할 수준의 실물 무역 경쟁력과 압도적인 차익거래 마진이 결합하면서, 스페인령 아메리카 포토시(Potosí) 광산과 일본 등에서 채굴된 전 세계 은 공급량의 대부분이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와 교환되어 대거 유입되는 ‘글로벌 은의 블랙홀’ 현상이 나타났다. 즉, 중국은 자체적인 은 주조 기술이나 금속 매장량이 없음에도 오직 독보적인 실물 생산력의 우위만으로 당대 글로벌 유일의 안전 자산이었던 은을 자국의 지배적 통화 표준으로 삼을 수 있었다. 이 흐름은 결국 1581년 명나라가 국가 세금 제도를 은납으로 통일한 ‘일조편법(Single Whip Law)’의 공포로 이어졌다.



대명통행보초(大明通行寶鈔)의 1관 지폐 ⓒ 위키피디아

그러나 이런 식의 통화 조달은 '통화 유동성 공급의 전적인 대외 종속성'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었다. 중국 영토 내 자체적인 은 생산량은 극히 미미하여 대규모 실물 시장의 유동성 수요를 전혀 감당할 수 없었기에, 실물 경제가 필요로 하는 화폐 공급량의 절대다수를 수입산 은에만 전적으로 의존했다. 즉, 실물 생산력은 세계 최강이었으나 이를 독자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화폐 주권(중앙은행이나 독자적 화폐 주조권)은 전무한 상태였다. 결국 대외 충격에 의한 붕괴는 도둑처럼 한순간에 찾아왔다. 1630년대와 1640년대에 일본 도쿠가와 막부의 쇄국 정책(Sakoku)으로 인한 일본산 은 수출 제한과 스페인 국왕 필리프 4세의 밀무역 규제 강화로 아메리카 은의 마닐라 선적량이 급감하는 글로벌 공급 쇼크가 발생했다. 중국의 실물 경제는 일조편법으로 인해 세금 납부와 대형 거래가 '은'에 완벽히 묶여(Lock-in) 있는 고정적 구조였으나, 유입되는 화폐(은) 공급량만 갑작스럽게 수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내부에는 처참한 '수입형 디플레이션'이 엄습했다. 은의 상대적 희소가치가 치솟아 은 가격이 폭등하자, 농민들이 시장에 내다 파는 곡물과 수공업 제품 가격은 폭락했다. 농민들은 예전보다 서너 배 많은 농산물을 팔아야만 동일한 액수의 은 세금을 낼 수 있었기에 연쇄 파산에 직면했고, 국가 세수 역시 극도로 피폐해졌다. 결국 국가 재정이 고갈되어 북방 경비 부대원들의 급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군인들이 무더기로 반란군에 가담했고, 이 지독한 금융-실물 디플레이션 파국이 도화선이 되어 1644년 명나라는 멸망했다. 중국의 사례는 아무리 뛰어난 실물 경쟁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독자적인 화폐 주권(통화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해 통화 유동성을 스스로 유연하게 제어하지 못한 국가의 운명을 보여줬다. 대외적인 통화 공급망에 목줄을 쥐여준 명나라는 외생적인 금융 발작 한 번에 실물 생산 체계 전체가 일시에 마비되어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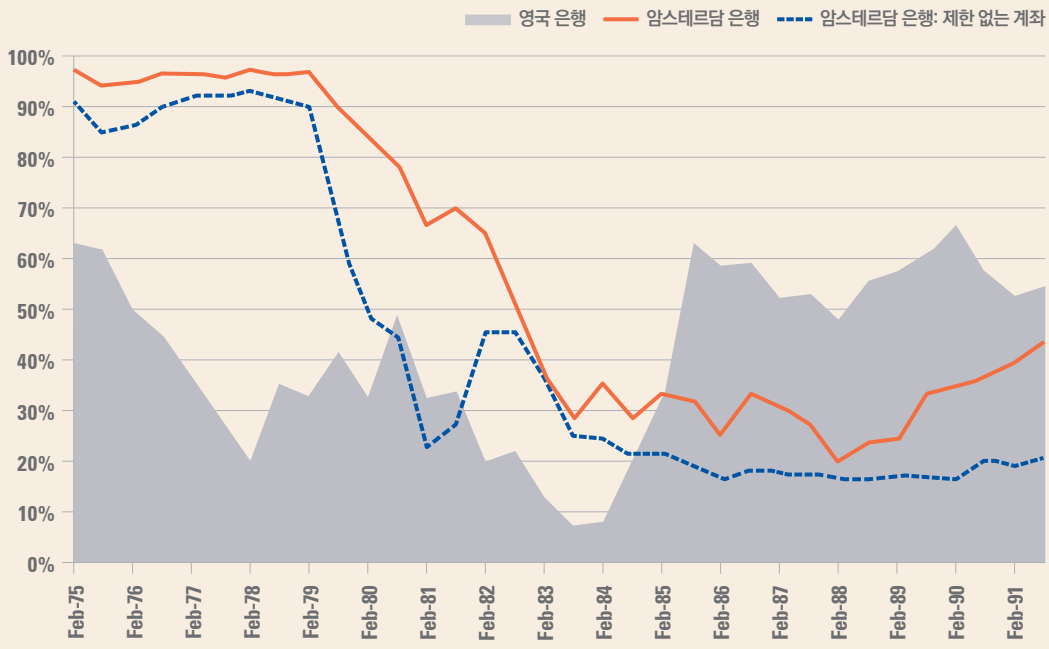
네덜란드 길더화의 실물적 기원과 금융 특권에 의한 제조업 고사

18세기 유럽 금융의 정점이었던 네덜란드 길더화의 퇴조는 '실물 무역의 경쟁력이 어떻게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라는 '터무니없는 특권(Exorbitant Privilege)'을 낳았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특권에서 발원한 저금리 금융 유동성이 역설적으로 자국 제조업 실물을 어떻게 공동화하고 파괴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특히 달리오가 경고한 '금융적 관성이 시간을 연장하지만, 붕괴 시 급격하다'는 원리와, '금융 권력으로 실물을 되살릴 수 없다'는 교훈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역사적 실증이다. 17세기 초 네덜란드의 국력과 통화

위상은 철저히 하층의 실물 경쟁력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네덜란드는 당대 혁신적이었던 플레이트(Fluyt) 선박 건조 기술과 발트해 곡물 무역의 독점적 중개 무역 중심지(Stapelmarkt) 지위라는 압도적인 실물 경제 경쟁력을 기반으로 부를 쌓아 올렸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상선단의 압도적 규모는 네덜란드 공화국에 대규모 저축과 자본 축적을 선사했다. 이 거대한 실물 거래 청산의 편의성과 위조지폐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609년 시 정부는 암스테르담 은행(Wisselbank)을 설립했고, 이 은행의 장부상 길더화가 지닌 확고한 안정성은 길더화를 전 유럽 상인들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독보적인 국제 결제 통화로 등극시켰다. 즉, 압도적인 해상 제조업과 실물 무역의 성공이 선행하여 상층 금융 구조의 신뢰성과 길더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1670년대 이후 영국과 프랑스 등 후발 경쟁국들이 보호무역 장벽을 세우고 저임금을 무기로 추격해 오자 네덜란드의 전통 직물업 등 하층의 제조업 경쟁력은 가파르게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 위기의 국면에서 기축통화국으로서 누리던 저금리 차입 혜택, 즉 '터무니없는 특권'은 네덜란드 실물 경제의 숨통을 끊는 독약으로 변모했다. 길더화의 글로벌 지위 덕분에 전 유럽의 수많은 유휴 자금이 암스테르담의 대형 민간 금융기관(Hope & Co. 등)에 무이자 혹은 초저금리로 유입됐고,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금리로 무제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특권을 향유했다. 하지만 이 풍부하고 저렴한 유동성은 실물 경제로 흘러가지 않았다. 이미 고비용 구조와 경직된 명목 임금으로 인해 제조업 마진이 축소된 상태여서 자본가들은 국내 직물업이나 선박 제조업 등 기술 연구개발(R&D) 설비 투자를 완전히 외면했다. 대신 이 거대한 금융 자본들은 자본 시장 내부에서만 순환하며 카리브해 설탕 플랜테이션의 고위험 모기지 채권 인수, 영국 동인도회사 주식 투기, 해외 군주들의 국채(Sovereign Debt) 매입 등으로 쏠리는 극단적인 '금융화(Financialization)'와 생산 활동 없이 자산 소득만으로 살아가는 '렌티어화(Rentierization)'를 겪었다.[4] 결국 실물 제조업(하층 구조)은 공동화되어 해체됐으나, 기축통화국 지위가 부여하는 저금리 조달력에 힘입어 상층의 금융 서비스 시장만 화려하게 팽창하는 '실물과 금융의 기형적 분리(Decoupling)'가 발생한 것이다. 달리오의 프레임워크에서 이 시기는 전형적인 '거대한 순환'의 말기에 해당한다. 금융적 관성이 실물의 쇠퇴를 은폐하고, 관성이 부여하는 시간 동안 부채와 투기적 자산이 팽창하며, 패권국 내부의 빈부 격차와 정치적 갈등이 극대화되는 단계이다.

이 사상누각 체제는 1780년 제4차 영란전쟁(英蘭戰爭)이라는 해상 지정학적 사건이 터지며 무참히 붕괴했다. 전쟁으로 해상 항로가 차단되자 준정부 대기업(GSE)이었던 동인도회사(VOC)의 실물 영업이 전면 마비되며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동인도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무담보 긴급 대출을 공급하는 구제금융을 남발했고, 이는 은행 자산의 회생 불가능한 부실화를 초래해 1784년에 이미 실질적인 '정책적 지급불능(Policy Insolvency)' 상태에 도달했다.[5] 약 1세기에 걸친 금융적 관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여기서 네덜란드 경제의 쇠락을 결정지은 핵심 원인은 이미 자국 내 실물 제조업이 전면 해체된 상태여서, 세수 기반이 고사한 시 정부는 은행을 살려낼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나 세수 동원력이 전무했다는 사실이다. 실물 경제라는 강력한 방어막이 부재한 상태에서 암스테르담 은행은 1790년 은행



은행 발행 지폐에 대한 귀금속 지불 준비율 © DNB Working Paper No.696. November 2020

화폐 프리미엄(Agio)이 소멸하며 지급불능을 선언하게 됐고, 이는 '신용 화폐 길더'에 대한 전방위적인 신뢰 붕괴를 초래하여 예금자들의 격렬한 뱅크런과 해외 자본의 대탈출을 촉발했다. 1795년 프랑스 혁명군의 침공과 네덜란드 공화국의 종말과 함께 길더화는 세계 무대에서 즉각 영구 제명됐다. 길더화의 운명은 실물 경제의 기초를 상실한 채 상층 금융 특권에만 안주한 기축통화국은 위기 시 국가 세수를 활용해 중앙은행을 회생시킬 '실물 생산적 안전장치'마저 상실하게 됨을 방증하는 역사적 사례다.

영국 파운드화에서 미국 달러화로의 헤게모니 전이와 다극적 공존

영국 파운드화에서 미국 달러화로 넘어가는 기축통화 전이 과정은 실물 패권이 이동한 뒤에도 금융 패권의 관성이 얼마나 오래 작동하며 신흥 경쟁자와 공존기를 갖는지, 그리고 그 관성이 어떤 조건에서 급격히 깨지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역사적 사례다. 미국의 실물 경제 규모가 영국을 추월한 시점은 대략 1870년대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후 반세기가 지난 1920년대까지도 파운드화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축통화로 군림하며 금융 관성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영국은 실물 제조업에서 미국과 독일에 추월당한 뒤에도, 런던 시티의 오랜 금융 노하

> "영국 파운드화에서 미국 달러화로의 전이 과정은 금융 패권의 관성이 얼마나 오래 작동하며 신흥 경쟁자와 공존기를 갖는지, 그 관성이 어떤 조건에서 깨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우, 파운드화 기반의 글로벌 무역 결제 네트워크, 대영제국 식민지 경제권의 스털링 블록 등 상층 금융 인프라의 깊이와 네트워크 효과 덕분에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로버트 트리핀 등이 제시한 고전적 기축통화 전환 모델은 달러화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1944)에서야 비로소 기축통화로 등극했다고 주장하지만, 에이컨그린의 분석에 따르면 달러화는 이미 1920년대 중반에 글로벌 외환보유고 구성에서 파운드화를 추월하기 시작했고, 1929년에는 국제 채권 시장의 주류 표시 통화로 도약했다.[6] 에이컨그린은 1913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창설이라는 금융 인프라 구축이 실물 우위를 통화 패권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촉매였음을 밝혔다. 미국은 1870년대부터 세계 최대의 실물 경제였지만, 중앙은행 시스템이 부재한 탓에 달러화를 국제 결제 통화로 기능하게 할 금융 인프라가 전무했다. 연방준비제도 창설 이후 뉴욕 자본 시장의 유동성이 급속히 심화하면서, 비로소 달러화는 파운드화와 금융 영역에서도 대등하게 경쟁할 힘을 갖추게 됐다.[7] 그러나 그 이후에도 20년 이상 글로벌 기축통화 시장은 승자독식의 단극 체제가 아니라 복수의 통화가 상당 기간 공존할 수 있는 다극적 경쟁 구조를 유지했다. 1930년대까지 달러와 파운드는 거의 대등하게 세계 예비 자산을 나누어 가졌다. 이는 그만큼 금융 패권의 관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방증한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 달러와 대등하게 경쟁하던 파운드화는 언제, 왜 급격히 기축통화 지위를 상실했는가? 1931년 영국의 금본위제 이탈이 첫 번째 균열이었으나, 에이컨그린의 연구에 따르면 파운드화는 1930년대 후반에 외환보유고 점유율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기도 했다. 금융 관성이 한 번 더 작동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급격한 붕괴'는 제2차 세계대전이 가져왔다. 이는 달리오가 말하는 '관성의 임계점을 깨뜨리는 지정학적 충격'의 전형적 사례다. 전쟁 수행을 위해 영국은 미국에 천문학적인 채무를 지게 됐고, 국외 자산을 대거 매각해야 했으며, 세계 최대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했다.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에서 달러 중심 체제가 공식화됐고, 전후 1947년 파운드화 태환성 위기, 1949년과 1967년 두 차례에 걸쳐 평가절하가 뒤를 이으며 파운드화는 사실상 기축통화 지위를 완전히 상실했다. 실물 경제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간 뒤에도 70년을 버틴 파운드가 세계대전이라는 지정학적 충격을 계기로 약 7년 만에 급속히 퇴장한 것이다. 이 기간에 수십 년간 축적된 구조적 약점, 즉 실물 경쟁력 열위, 제국 유지 비용, 전시 부채 등이 한꺼번에 표면화되어 비가역적 전환이 완성됐다. 이처럼 '실물 추월 → 장기 공존 → 지정학적 충격에 의한 급격한 전환'이라는 패턴은 파운드-달러 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앞서 분석한 네덜란드 길더화의 퇴장 과정에서도 동일한 구조가 관찰된다. 18세기 중반부터 런던은 이미 암스테르담과 경쟁하는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었고, 파운드화의 국제적 위상은 7년 전쟁(1756~63) 이후 영국의 해상·식민 패권 확장과 함께 꾸준히 상승했다. 길더화가 최종 붕괴한 1780~95년 직전의 약 30~40년간 두 통화는 사실상 공존·경쟁 관계에 있었다. 네덜란드 자본가들이 영국 동인도회사 주식이나 영국 국채에 대거 투자한 것 자체가 이 공존기의 산물이다. 자국 실물이 쇠퇴한 네덜란드의 금융 자본이 오히려 경쟁자인 영국의 성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고, 결국 제4차 영란전쟁(1780)이라는 지정학적 충격이 이 공존을 종결했다. 이로써 기축통화 전환에는 일관된 보편적 패턴이 존재함이 확인된다. 실물 경제의 추월이 선행하고(제1법칙), 금융 관성 덕분에 기존 통화와 신흥 통화 사이에

수십 년 간의 공존기가 형성되며(제2법칙), 이 공존기는 전쟁이나 금융 위기와 같은 거대한 지정학적 충격을 계기로 급격히 종결된다(제3법칙). 길더-파운드 전환에서도, 파운드-달러 전환에서도 이 삼단계 구조는 동일하게 반복됐다. 이는 오늘날 달러-위안, 또는 달러-디지털자산 간의 관계를 전망하는 데서 중요한 역사적 기준선을 제공한다.

미국 달러의 단일 패권 구축과 진화

1944년 수립된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미국 달러화는 금 1온스당 35달러에 고정된 유일한 태환 화폐로서 세계 금융의 정점에 섰다. 그러나 1960년대 베트남 전쟁과 사회 복지 예산 확대로 인한 미국의 극심한 재정 적자는 대외 달러 공급 과잉을 불러왔고,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달러화의 금 태환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닉슨 쇼크를 단행했다. 거시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Michael Hudson)은 저서 『슈퍼 제국주의(Super Imperialism)』를 통해 미국이 1971년 금 태환 중단을 오히려 달러 적자 자금의 무제한 조달이 가능한 '미 국채 표준(Treasury Bill Standard)'으로 탈바꿈시켰다고 분석했다.[8] 금이라는 통제 장치가 사라지자, 대외 무역 흑자를 기록한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자국의 자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잉여 달러를 미국 국채에 재투자할 수밖에 없는 종속적 굴레에 갇히게 됐다. 허드슨은 이를 세계 경제가 미국의 국내 재정 적자와 대외 군사 확장 비용을 강제적으로 조달해 주는 일종의 '화폐주조세(Seigniorage Tax)'라고 정의했다. 이 표준을 실물 시장에서 영구히 고착시킨 장치가 바로 1974년 수립된 페트로달러 체제다. 미국 재무장관 윌리엄 사이먼과 헨리 키신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역사적 밀약을 타결했다. 미국은 사우디 왕가에 확고한 군사·지정학적 안전보장을 약속했고, 사우디는 자국의 원유 수출 가격을 오직 미국 달러화로만 결제하며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다른 회원국들도 이를 채택하도록 강제했다. 유가 급등으로 축적된 사우디의 원유 판매 대금은 미국 국채 시장에 대규모로 재투자(Petrodollar Recycling)하는 영구적 순환 메커니즘이 확립됐다. 사우디의 특별 요구에 부응하여, 미국 재무부는 사우디가 입찰 경쟁 없이 국채를 우선 할당받는 비밀 애드온(Add-on) 창구를 개설해 줬고, 이에 따라 1977년까지 사우디는 대외 유통되는 전체 미국 국채의 약 20%를 보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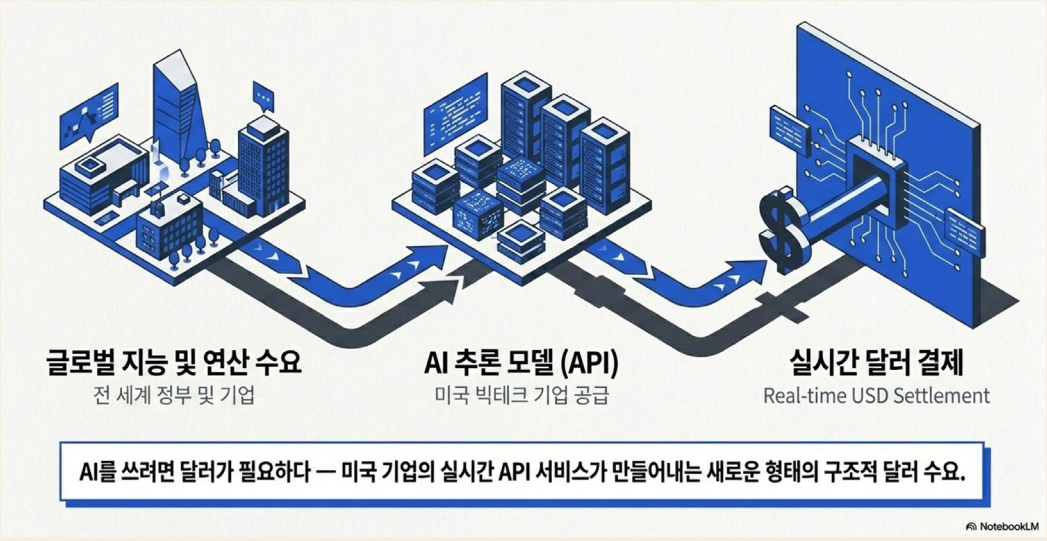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미국 달러 패권은 두 번째 구조적 보호막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무형자산 혁신과 금융 세계화의 결합을 마주하게 된다. 이 시기 미국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인터넷 네트워크 등 제3차 산업혁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전 세계 실물 혁신의 고지를 재탈환했다. 동시에 실물 제조업 생산 기지의 대규모 아웃소싱을 진행하면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양산해 냈다. 2005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 "금 태환 중단으로 세계 경제가 미국의 국내 재정 적자와 대외 군사 확장 비용을 강제적으로 조달해 주는 일종의 '화폐주조세(Seigniorage Tax)'의 굴레에 갇혀"

약 6.4%에 달하는 역대 최악의 수치였다.[9] 이 놀라운 모순은 2004년 미국의 공식 순대외부채가 장부상 약 2.5조 달러에 달했지만, 미국의 대외 순투자소득은 연간 약 300억 달러의 플러스를 기록하는 데서도 드러났다. 하버드대학교의 페데리코 스투르제네거와 리카르도 하우스만 교수는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이른바 암흑 물질(Dark Matter) 이론을 제창했다.[10] 암흑 물질이란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력을 통해 존재가 확인되는 물질이다. 두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매년 300억 달러의 순투자소득은 미국이 연이율 5%를 받는 약 6,000억 달러의 해외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순채권 상태임을 의미한다. 그들이 지목한 보이지 않는 6,000억 달러라는 암흑 물질의 원천은 두 가지다. 첫째는 미국 다국적 기업의 국외 직접투자에 연동되어 이전되는 독점적 경영 노하우, 브랜드 파워, 특허권 등 무형 지식재산 자산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외 직접투자 수익률은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수익률보다 본질적으로 더 높았다.[11] 둘째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무위험 자산인 미국 국채를 초저금리로 공급하고 조달한 자금을 국외 고수익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거대한 금리 스프레드를 수취하는 글로벌 유동성 서비스 역할이다.

2020년대에 접어들어 정보기술(IT) 시대의 무형자산, 금융 세계화, 그리고 암흑 물질의 구조는 인공지능 혁명을 통해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첫째, 무형자산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IT 시대의 무형자산은 운영체제, 검색 알고리즘 등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이었다. 그러나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범용 AI는 특정 기능이 아니라 '추론 능력 자체'를 상품화한 것이다. 하나의 AI 모델이 법률, 의료, 금융, 제조, 교육 등 전 분야를 동시에 관통하는 범용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기능하므로, 무형자산의 적용 범위와 수익 승수가 IT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된다. 둘째, 금융 세계화의 매개체가 자본의 이동에서 '지능의 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IT 시대의 금융 세계화가 달러 표시 자본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AI 시대에는 미국 기업의 AI 모델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전 세계 기업과 정부에 추론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그 사용료가 달러로 결제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페트로 달러가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라는 강제 수요를 만들었듯이, 'AI를 쓰려면 달러가 필요하다'라는 새로운 형태의 구조적 달러 수요를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다. 셋째, 암흑 물질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와 가중치는 공식 대외자산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매년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다. 미국 기업이 국외에 AI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전되는 것은 모델의 '추론 결과'이지 모델 자체가 아니므로, 핵심 지적 자산은 미국 내에 잔류하면서 국외 수익만 환류되는 구조가 한층 강화된다. 엔비디아(NVIDIA)의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비롯한 미국 설계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의존도 역시 AI 시대에 더 심화해, 하드웨어 차원에서도

> "2020년대에 접어들어 미국의 정보기술(IT) 시대의 무형자산, 금융 세계화, 암흑 물질(대외 순자산)의 구조는 인공지능 혁명을 통해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진입"



장부에 잡히지 않는 기술적 지대(Rent)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AI 기반 암흑 물질의 팽창이 과거 네덜란드가 걸었던 금융화의 덫, 즉 실물 제조업은 공동화되면서 상층의 무형 수익만 화려하게 부풀어 오르는 구조의 디지털판 반복이 아니냐는 근본적 질문은 남는다. AI 수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은 반도체 제조, 에너지 인프라, 물리적 공급망이라는 실물적 기반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엔비디아 칩 제조는 TSMC(대만)에, 희토류는 중국에, 에너지는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미국의 AI 패권이 자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실물 공급망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일 수 있음을 경고한다.

결론: 미국 달러의 단일 패권 지속성에 대한 열린 질문

에이컨그린을 비롯한 많은 실증 사학자는 미국이 누리고 있는 화폐 발행과 인위적인 평가절하 권한이 무너진 제조업 등 하층의 실물 경쟁력을 진정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가를 두고 철저하게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에이컨그린은 최근 수년간 미국 달러화의 실질 대외 가치가 크게 평가절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조업 고용지표와 생산지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실증적 데이터로 밝혔다. 이는 실물 제조업의 퇴조가 인위적인 화폐 가격이나 환율 조정으로 회복될 수 없으며, 설비 노후화, 부품 공급망 붕괴, 이공계 인적 자본 및 숙련 기술공 소멸 등 비가격적이고 비가역적인 구조적 요인(생산성의 이력 현상)에 의해 지배받기 때문이다. 양적 완화를 통한 자금 살포는 오직 장부상 금융 자산의 가격만을 폭등케 해 금융화를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실물 경제의 인프라 투자를 더 가로막아 몰락의 가속 페달을 밟게 할 뿐이다. 역사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 법칙은 기축통화의 생애주기가 하층 구조의 건강성에 의해 궁극적으로 규정된다는 사실이다. 달리오의 '거대한 순환' 프레임워크가 정리하듯, 실물 혁신이 생산성을 견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 패권이 확립되며, 패권의 관성이 시간을 벌어주지만, 그 기간에 부채와 모순이 축적되어 임계점을 넘으면 급격한 붕괴가 시작되고, 한번 무너진 실물 기반은 금융적 수단으로 되살릴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거시적 인과관계와 유효 법칙들을 기반으로,

> “향후 미국 달러의 패권의 운명은 AI와
> 금융 수단에 의한 실물경제의 회복 가능성, 중국 금융의 제도적 진화,
> 미국발 전쟁의 결과, 분산형 디지털 인프라에 의한
> 신금융 질서의 탄생 여부에 달려”

오늘날의 환경 속에서 미국의 달러 패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본질적 질문을 직면해야 한다.

첫째, 무형자산과 AI 혁명이 실질적인 실물 경제 회복력을 가질 것인가? 대규모 언어모델 중심의 AI 혁명을 아우르는 미국의 무형 실물 혁신 리더십은 전통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쇠락과 연방 정부의 부채 한계를 영구적으로 상쇄하고 기축통화 달러화의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신형 실물 엔진이 될 수 있는가? 만약 이 AI 자산의 수익 모델이 기대만큼 실물 가치를 창출해 내지 못하거나, 달리오가 경고한 거대 주기의 말기적 부채 누적 상태와 결부된다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금융화의 덫이자 마지막 불꽃에 불과한 것인가?

둘째, 향후 미국에서 금융적 수단에 의한 실물 제조업의 회생이란 역사적 신기원이 일어날 것인가?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 미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의도적 달러 평가절하를 단행했으나, 에이컨그린이 실증했듯이 제조업 고용과 생산은 전혀 반등하지 않았다. 2008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로 수조 달러의 유동성을 살포했으나, 그 자금은 제조업 설비가 아닌 금융 자산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었다. 그리고 현재 달러화는 미국 연준의 고금리 정책과 안전자산 수요에 힘입어 오히려 상대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제조업 수출 경쟁력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역설적 상황은 기축통화국의 근본적 딜레마를 드러낸다. 달러를 약하게 만들면 기축통화 신뢰가 훼손되고, 강하게 유지하면 제조업이 되살아나지 못한다.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듯, 구조화된 실물의 이력 현상이 작동하는 세계에서 환율이나 금리라는 가격 변수의 조정만으로는 설비 해체, 공급망 붕괴, 숙련 인력 소멸이라는 비가격적·비가역적 손상을 치유할 수 없는 것인가?

셋째, 경쟁국의 금융 제도적 깊이 부재가 달러 패권에 주는 유예 기간은 얼마일까? 역사적으로 기축통화의 전환은 신흥 패권국이 압도적인 실물 경제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다. 미국은 1870년대에 이미 세계 최대의 실물 경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1913년 연준이 창설되어 금융 시장의 제도적 깊이가 확보되기 전까지 달러화는 국제 결제 통화로 기능조차 할 수 없었다. 연준 창설이라는 금융 인프라 혁명이 비로소 실물 우위를 통화 패권으로 전환하는 결정적 촉매가 됐던 것이다. 오늘날 달러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 거론되는 중국 위안화의 현 상황은 이 역사적 교훈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한다. 중국은 이미 구매력 기준 세계 최대의 실물 경제이며 세계 최대의 무역국이지만, 자본 계정의 엄격한 통제, 완전한 태환성 부재, 독립적 사법 체계와 투명한 금융 거버넌스의 미비 등 금융 제도의 깊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연준 창설에 비견할 만한 금융 제도의 근본적 개혁, 즉 자본 시장의 완전 개방, 위안화의 자유 태환, 독립적 중앙은행 거버넌스 확립 등을 단행하지 않는 한,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제도적 기반은 구축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달러 패권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은 미국 자체의 강점이 아니라 경쟁자의 금융 제도적 미성숙에 있을 수 있으며, 이 '대안의 부재'가 달리오가 말한 금융 관성의 시간을 얼마나 더 연장해 줄 것인지가 핵심 변수다.

넷째, 전쟁의 승패가 기축통화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역사가 반복될까? 본 분석에서 확인된 가장 일관된 역사적 패턴 중 하나는 기축통화 공존기의 종결이 예외 없이 전쟁의 승패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네덜란드 길더화의 최종 붕괴는 제4차 영란전쟁(1780) 패배가 직접적 방아쇠였고, 영국 파운드화의 비가역적 퇴장은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승전국이면서도 사실상 경제적으로 파산한 결과가 결정적이었다. 전쟁은 관성의 기간에 은폐되어 있던 실물 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한꺼번에 노출하고, 천문학적인 전비 지출을 통해 부채를 임계점 너머로 밀어 올리며, 패전 또는 소모전의 결과로 기축통화에 대한 글로벌 신뢰를 비가역적으로 파괴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해 왔다. 이 역사적 교훈에 비추어, 아프가니스탄 철수(2021), 우크라이나 대리전, 중동 분쟁의 확대 등 최근 미국이 촉발했거나 직접 개입한 전쟁들의 결과는 단순한 지정학적 사건이 아니라 달러 기축통화 지위의 존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구조적 변수로 읽어야 한다. 만약 이 전쟁들이 명확한 승리 없이 장기 소모전으로 귀결되거나 전략적 후퇴로 마무리된다면, 이는 네덜란드가 영란전쟁에서, 영국이 세계대전에서 겪었던 것과 같이 패권국의 재정적·신용적 기반을 급속히 침식하는 역사적 경로의 반복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분산형 디지털 인프라가 세계 역사상 최초로 패권 없는 금융 공존 체제를 만들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기축통화의 교체는 예외 없이 파괴적인 글로벌 지정학적 대충돌을 동반하여 일어났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원장 기술에 기반한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대중화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연동 청산망의 등장은 역사적 전례가 없었던 패권 전쟁 없는 평화적 우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가? 미래의 탈달러화는 또 다른 지배국 통화로의 패권적 이전으로 완결될 것인가, 아니면 다극적·분산형 통화 공존 체제로 수렴할 것인가?

---

1 Dalio, Ray. Principles for Dealing with the Changing World Order: Why Nations Succeed and Fail. New York: Simon & Schuster, 2021.

2 쑹훙빙(宋鴻兵). 『화폐전쟁 세트』. 차혜정·홍순도 옮김, 박한진 감수.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20.

3 Frankopan, Peter. *The Silk Roads: A New History of the World*. London: Bloomsbury, 2015.

4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Dutch Treat: The Netherlands' Exorbitant Privilege in the Eighteenth Century." *Liberty Street Economics*, October 2025.

5 Quinn, Stephen, and William Roberds. "Death of a Reserve Currency: Balance Sheet Reconstruction." Deutsche Bundesbank Working Paper, 2015.

6 Eichengreen, Barry, and Marc Flandreau. "The Rise and Fall of the Dollar." CEPR Discussion Paper 6869, 2008.

7 Eichengreen, Barry. "The Rise and Fall of Global Currencies." *Econofact EFChats* Transcript, May 2026.

8 Hudson, Michael. *Super Imperialism: The Economic Strategy of American Empire*. 3rd ed. ISLET/Pluto Press, 2021.

9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Current-Account Deficit Increases in Fourth Quarter 2005." Press Release, March 14, 2006.

10 Hausmann, Ricardo, and Federico Sturzenegger. "Global Imbalances or Bad Accounting? The Missing Dark Matter in the Wealth of Nations." CID Working Paper No. 124, Harvard Kennedy School, 2005

11 Setser, Brad. "Searching for the Origins of Dark Matte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y 2006.

베이징 연속 정상회담
미·중·러 관계의 '공회전'

임명묵 국제정치평론가

2026년 5월 세계 외교의 눈이 베이징으로 쏠렸다. 현재 세계 3대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중국·러시아 정상들이 베이징에서 잇따라 만났기 때문이다. 물론 삼자 정상회담은 아니었다. 먼저 5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사실 러시아 역시 그 이전부터 방중을 준비하고 있었다. 2026년이 러·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자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25주년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이 막 끝난 다음 날인 5월 16일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사흘 뒤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발표하자 외교가의 관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1] 러시아 역시 미·중 정상회담을 중요한 변수로 의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암묵적 신호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러·중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중대한 외교적·

> "미·중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푸틴 대통령의 방중 일정은 러시아 역시 미·중 정상회담을 중요한 변수로 의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암묵적 신호로 다가와"



2026년 5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 위키피디아

전략적 돌파구가 마련됐을까? 실제 두 회담에서 논의된 의제를 보면, 마치 2026년 현재 지정학적 최대 현안들의 집대성처럼 보일 정도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오랫동안 신경전을 벌인 양국 간 관세와 무역 분쟁과 대만 문제, 차세대 전략 경쟁 분야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문제가 다뤄졌고, 미국 측에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NVIDIA)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Tesla) CEO를 대동하기까지 했다. 양국이 깊게 개입된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위기도 논의됐다. 러·중 정상회담은 'G2 회담'에 준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역시 상당한 중요성을 띤 의제들이 올라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일방주의를 향한 양국의 공동 비판, 에너지 협력 등이 대표적이었다. 특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중국 수출용 러시아 가스관 '시베리아의 힘-2' 계약이 타결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하지만 5월의 두 '베이징 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음에도, 정작 핵심 현안에서 뚜렷한 돌파구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중 회담의 경우, 중국 측이 미국산 농산물과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겠다고 약속해서 미국의 '면'을 세워줬음에도, 관세·반도체·대만·

> "5월에 이뤄진 미·중, 러·중 정상회담은
>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음에도 핵심 현안에서는
> 뚜렷한 돌파구를 만들어 내지는 못해"



2026년 5월 20일 베이징에서 악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 위키피디아

이란 등 핵심 현안에서는 양국이 그은 평행선이 좁혀지지는 않았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관세 분쟁과 기술 패권 경쟁의 추가 확대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이란 전쟁의 종식과 대만 해협의 평화라는 원칙에도 동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나 상호 양보의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서로 갈등을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만 확인했지, 실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와 그 합의 실현을 위한 의지는 여전히 내비치지 않은 것이다.

러·중 정상회담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략적 경쟁이 노골화된 미·중 관계와 달리, 러·중 관계는 최근 수년간 급속도로 밀착됐기에 회담 분위기 자체는 훨씬 우호적이었다. 실제로 양국은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및 전략적 상호협력의 추가 강화와 선린우호협력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법과 주권평등 원칙을 국제질서의 기본 원칙으로 강조하고,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패권주의와 신식민주의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국가들'이 다극화된 세계 질서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중에서도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는 '위기의 근본 원인'을 언급함으로써 중국이 러시아의 안보 우려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란 문제에 관해서는 핵무기 확산을 반대하면서도 군사적 수단과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미국식 군사개입이 아닌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금융·우주·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 지역의 연계 강화, 교육·문화 교류 확대에 관한 여러 합의 목록도 이어졌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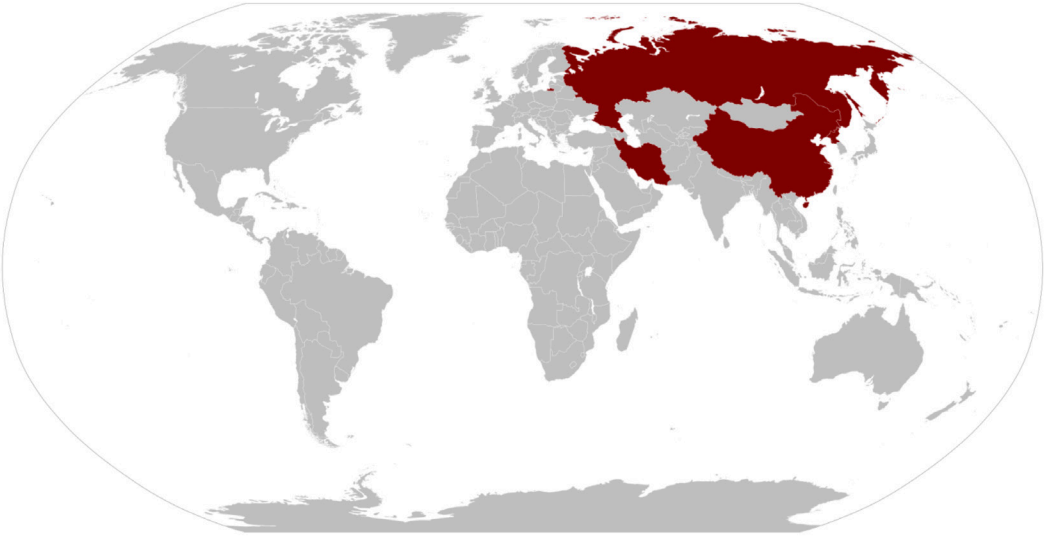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은 적어도 지난 10여 년 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반복적으로 발표해 온 여러 공동성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실제 다극화 세계 질서, 국제법과 주권평등 원칙, 일방주의 반대, 에너지·기술 협력 확대 등은 이미 양국 관계를 설명하는 익숙한 표현들이었다. 따라서 회담 이후 공동성명에 담긴 원칙론적 합의가 아니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이



이미 가동 중인 '시베리아의 힘-1' 가스관(실선)과 계획 단계에 있는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점선) 지도 ⓒ 위키피디아

더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러시아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숙원 사업인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이었다. 러시아 북부 야말 지역의 천연가스를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하는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인 '시베리아의 힘-2'는 계획대로 완공된다면 연간 약 500억㎥의 가스를 중국에 추가 공급할 것으로 오랫동안 기대를 받은 사업이었다.[3]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부터는 유럽 시장을 사실상 상실한 러시아가 새롭게 확보할 수 있는 유력 대체 경로였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숙원 사업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번 러·중 정상회담에서도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의 최종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그 결과 시장의 기대가 꺾이면서 회담 직후 가스프롬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기도 했다.[4]

지정학적 환경과 에너지 시장이 빠르게 변동하는 가운데 '시베리아의 힘-2' 계약이 이번에도 불발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러시아와 중국은 가스 공급 가격과 계약 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오랫동안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유럽 시장 접근이 각종 제재로 대폭 제한되고 중국의 가격 협상력이 강화되면서 양국의 의견 불일치는 더 확대된 상태였다. 러시아는 중국이 제시하는 낮은 가격을 수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러·중 정상회담 3개월 전에 발발한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위기는 '시베리아의 힘-2' 합의를 위한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국제 에너지 시장, 특히 해상 운송로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육상 에너지 인프라의 전략적 가치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고, 러시아의 협상력 역시 향상됐기 때문이다.[5] 그런데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최근 몇 개월간의 위기와 지정학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러·중 관계의 추가 심화에는 여전히 상당한 장애물이 존재함을 보여줬다. 이런 점에서 이번 러·중 정상회담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직전의 미·중 정상회담과도 겹쳐 보인다.



'CRINK' 혹은 '격변의 축(Axis of Upheaval)'로 분류되는 4개국 ⓒ 위키피디아

러·중 관계: 반미 연대인가, 종속 관계인가

미·중, 러·중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성과가 부재했다는 사실은 최근 지정학 분석에서 널리 유통되는 'CRINK론'에 큰 반례를 제공한다. 이는 중국(China)·러시아(Russia)·이란(Iran)·북한(North Korea)이 하나의 반서방 진영을 형성하여 미국 패권에 집단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6] 그러나 만약 이런 진영 논리가 정말로 실현되고 있었다면,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러·중 협력은 '시베리아의 힘-2'를 비롯한 핵심 현안에서 훨씬 더 큰 폭으로 진전됐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정상회담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대신 최근 몇 년 동안 서방에서 인기를 끈 '러시아의 대중 종속 심화' 가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더 힘을 얻는 모양새다.[7] 이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은 모두 러시아를 독자적인 세계 강대국이라기보다는 부차적인 지역 강국으로 취급하며, 실제 국제정치의 중심은 미·중 양자 관계에 있다고 본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시장에서 배제된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심화하면서, 중국이 러시아를 사실상의 종속국으로 둘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계에서 고립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와 광물, 식량을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하고, 반대로 중국산 공산품과 기술을 러시아 시장에 밀어 넣는 비대칭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8] '시베리아의 힘-2'를 둘러싼 견해차 역시 이런 종속 구조의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러시아는 중국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지만, 푸틴과 러시아 엘리트들은 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자존심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속론 역시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 관점은 암묵적으로 러시아와 서방의 경제 관계는 정상적인 무역·투자 관계인 반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일방적인 권력 관계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실제 러·중 관계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라기보다는 정치적 고려와 경제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거래 관계에 가깝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의 협상력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2014년 5월 '시베리아의 힘-1' 가스관 사업 계약에 서명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 위키피디아

러시아가 중국이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시베리아의 힘-2' 협상이 수년째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자체가 이를 보여준다. 만약 러시아가 사실상 중국의 종속국이라면, 중국이 원하는 가격과 조건을 받아들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편이 훨씬 더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러시아 역시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의 범위를 고수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역시 러시아가 필요하다. 특히 트럼프 1기 이후 미·중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러시아는 중국에 단순한 자원 공급국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다. 러시아는 중국의 중요한 에너지·식량·원자재 공급원이자, 미국 중심 질서에 대응하는 외교적 우군이며,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물류 통로이자 잠재 시장이기도 하다. 중국이 러시아에 일정한 지렛대를 확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거래 명세서를 내밀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

두 회담을 읽는 열쇠: 미국의 변화

그렇다면 5월의 이 '공회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했다고 본다면 설명이 꽤 쉬워진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호자를 자임하며 러시아와 중국을 향한 공세적 견제 정책을 펼쳐왔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2018년 미·중 무역전쟁,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미국 패권과 유라시아 강대국들의 충돌이었다. 러·중 양국은 미국이 전개하는 이런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심화를 선택했다. 미국이 제공하는 경제 질서, 세계시장 인프라 접근 측면에서 일정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양국의 밀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었다.[9]

이런 상황은 2024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국가안보전략문서(NSS)에서도 확인되듯, 최근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유지와 확산을 최우선 목표로

> “최근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미국을 더는 타협할 수 없는 이념적 적대자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매개로 거래할 수 있는 상대로 변하고 있다는 인식이 부상해”

내세우기보다는 국익과 권력에 기반한 강대국 정치의 논리를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체성을 재규정하고 있다.[10]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크게 바꾸는 데 충분한 것이었다. 물론 트럼프의 미국은 이전보다 더 공세적일 수 있었다. 베네수엘라·쿠바·이란을 상대로 한 정책에서 미국의 공격성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더는 타협할 수 없는 이념적 적대자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매개로 거래할 수 있는 상대로 변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따라서 5월의 두 베이징 회담을 더 잘 이해하려면 미·중·러 삼각관계 속에서 각국이 어떤 협상력과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 구조는 의외로 단순하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와 일정 수준의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국내 유권자에게 성과를 과시하고 유라시아 지정학을 관리하려 한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를 마련하려고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중국 역시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관세와 무역, 기술 통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다. 흥미로운 지점은 미국과의 거래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역설적으로 일종의 ‘공회전 구조’가 등장했다는 데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에게 협상과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아직 관계의 돌파구를 만들 정도의 양보를 제공할 의사는 없다. 국내 정치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런 상황은 러·중 양국 간에 협력을 지속할 유인을 제공한다. 하지만 동시에 양국이 상호 관망 속에서 협상력을 둘러싼 일종의 ‘인내력 경쟁’을 벌이게 만들기도 한다. 예컨대 러시아와 중국은 굳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공개적으로 과시할 필요도 없다. 자신들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여전히 서 있음을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우리가 더 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 현안인 ‘시베리아의 힘-2’를 둘러싼 역학은 이런 구조를 선명하게 드러내 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각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재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일부 제재 완화 조치 덕분에 일시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러시아가 중국이 제시하는 낮은 가격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배경이 된다.

중국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중국은 러시아 외에도 중앙아시아와 인도양 방면의 에너지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장기적인 탈화석연료 전략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발생했다고 해서 당장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더욱이 ‘시베리아의 힘-2’는 지금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실제 건설과 가동까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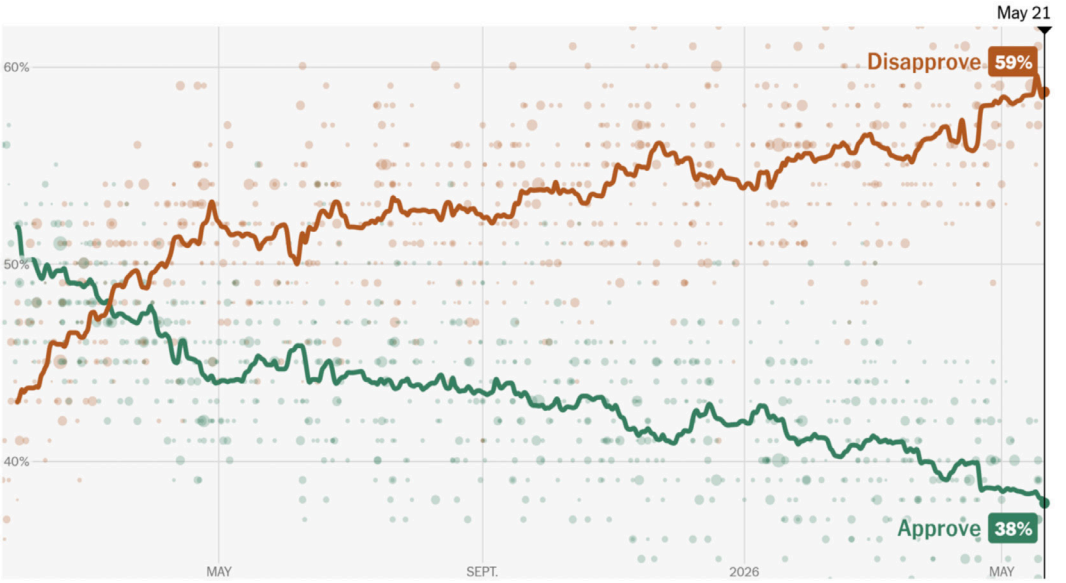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 제재를 우회하고자 활용하는 '그림자 선단' ⓒ 위키피디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반면 호르무즈 위기는 언제든 단기적 사건으로 끝날 수 있어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의 조건을 서둘러 수용할 이유가 크지 않다. 여기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란 문제나 기술 통제, 무역 분쟁에서 일정한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중국의 전략적 여유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대치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행정부가 돌파구를 만들어 내기 어려운 미국 정치 특유의 상황에 있다. 극단적으로 분열한 양당제 의회, 상당한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는 관료 기구, 특정 이해관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권자 집단과 로비 네트워크는 미국 외교 정책의 기동성을 크게 제약한다. 특히 미국 스스로 양보해야 하는 순간에는 이런 제약이 더 두드러진다.[11]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세 분쟁 모두에서 자신이 공언했던 수준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신기술과 에너지 지정학, 금융 패권과 같은 여러 전략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며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구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결국 미국 역시 러시아, 중국, 중동 가운데 적어도 한 곳에서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양보를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는 러시아와 중국 역시 미국의 이런 제약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은 미국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관망하고 있으며, 미국의 움직임에 맞춰 러·중 관계에서도 신중한 탐색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공회전은, 거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치적 의지와 구체적 계획은 부족한 미국이 만들어 낸 불확실성이 미·러·중 삼각관계 전체로 전파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세 강대국이 직면한 '시간 압박'

하지만 이런 공회전 상태가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 국제 정세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세 강대국 모두 나름의 시간 압박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호르무즈 위기로 인한 유가 상승 덕분에 일시적 여유를 확보했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사회적 피로라는 구조적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하락세가 뚜렷해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 국내 지지율 그래프 ⓒ 위키피디아

출구를 마련하거나,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호르무즈 위기가 예상보다 빨리 해소된다면 현재의 여유 역시 빠르게 사라질 수 있으므로 시간 압박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존재한다.

세 강대국 중 중국은 상대적으로 가장 긴 시간표를 가진 국가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 역시 위기 압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장기화한다면, 에너지 공급과 물가, 경기 둔화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미국과의 무역·기술 갈등 역시 계속해서 성장의 제약 요인이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중국도 세계적 변동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이상 마냥 시간 벌기만 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미국 또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돌파구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은 중국 역시 마찬가지인 셈이다.

당연하게도 가장 강한 시간 압박에 직면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 중동, 중국과의 전략 경쟁 등 세계 주요 갈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 특성상 당장 11월에 다가오는 중간선거 역시 의식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선책은 외교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정치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 상황을 관리하거나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간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미국의 시간 압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시점부터 미국은 2028년 대통령 선거를 향한 새로운 정치 일정에 들어가게 되며 시간 압박은 더 커진다. 임기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중국, 중동 가운데 적어도 한 곳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회전 회담'은 향후 발생할 더 큰 변화에 앞선 전초전이자 탐색전일 가능성이 크다. 회담 이후에도 외교와 협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며, '시간표'도 이미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중간선거를 앞둔 9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하고 미국 답방을 약속한 상태다.[12]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무역·기술·대만 문제 등이 주요 의제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단된 러·미 교류 역시

> “SPIEF에 미국 연방정부 인사가 참석하고,
> 러시아-미국 비즈니스 대화가 4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미뤄보아,
> 러·미 교류 역시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될 전망”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실제로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미국 연방예술위원회 위원장 로드니 쿡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7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미국 정부 인사가 SPIEF에 참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올해 2026년 SPIEF에는 ‘러시아-미국 비즈니스 대화’가 열리게 되어, 해당 세션이 4년 만에 재개됐다는 소식도 눈길을 끌게 한다.[13]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러·미 교류가 재개되고 대화 채널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면, 러시아로서도 ‘미국 카드’를 추가로 활용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각자의 계산서와 시간표를 들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상장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삼각관계 역학을 읽어낼 시야 길러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번 베이징 러·중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양국 협력 의지가 지나치게 과소평가돼서도 안 될 것이다. 사실 ‘시베리아의 힘-2’를 비롯한 메가 프로젝트에 가려져 있지만, 에너지·금융·기술·물류·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축적된 협력 채널은 여전히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확대되거나 신설된 채널 역시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2017년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직후 포럼에 참석한 미국 언론인 메긴 켈리와 인터뷰하는 푸틴 대통령
ⓒ 위키피디아

으로서는 양국 공동성명에서 일본과 북한 문제가 언급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중 양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형성된 역사적 합의를 수정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재확인하며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고, 동시에 북한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압박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14] 우크라이나, 이란, 대만, 반도체와 같은 거대 현안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 현안과 일상적인 협력의 축적 역시 삼각관계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5월의 베이징 회담이 한국에 던지는 과제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이해관계에 기초한 강대국 정치의 문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오늘날 미·중·러 관계를 움직이는 것은 가치나 진영 논리만이 아니라 각국이 인식하는 비용과 이익, 협상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러·미 관계, 미·중 관계, 러·중 관계가 각각 어떤 계산식에 의해 작동하는지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양자 관계는 저마다의 이해관계와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정치라는 커다란 판 위에서 서로 제약하고 촉진하며 하나의 미·중·러 삼각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삼각관계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전제돼야만 올해 하반기 국제정치의 변동과 러시아의 정책 방향을 더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역시 더 현실적인 토대 위에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

1 “On May 19–20, Vladimir Putin will make an official visit to China.”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79758

2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дальнейшем укреплении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партнёрства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об углублении отношений добрососедства, дружб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http://kremlin.ru/supplement/6487

3 “Россия и Китай договорились ускори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азопровода «Сила Сибири-2».”
https://www.kommersant.ru/doc/8673972#id3111129

4 “Акции «Газпрома» и ТМК снизились на фоне переговоров лидеров России и КНР.”
https://www.rbc.ru/quote/news/article/6a0dde4b9a7947650794ce50

5 “Why the Iran War Is a Boost for Stalled Russia-China Gas Pipeline.”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5-19/power-of-siberia-2-how-russia-china-gas-pipeline-plan-benefits-from-iran-war

6 “A New CRINK Axis of China, Russia, Iran and North Korea?”
https://www.csis.org/special-initiatives/CRINK-Axis

7 “As Putin visits China, distrust simmers beneath an anti-U.S. alliance.”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6/05/19/putin-visits-beijing-amid-growing-imbalance-russia-china-relations/

8 “With Putin in Charge, Russia’s Vassalage to China Will Only Deepen.”
https://carnegieendowment.org/russia-eurasia/politika/2025/09/russia-china-meeting-results

9 “서진(西進):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과 지정학적 의의.”
https://rioins.kr/news/news__list.html?bmain=view&uid=17&search=%26page%3D1

10 “2025년 국가안보전략: 미국의 ‘러시아화’ 신호탄일까?”
https://rioins.kr/news/news__list.html?bmain=view&uid=13&search=%26page%3D1

11 “러·미 알래스카 정상회담: 러시아의 시각.”
https://rioins.kr/news/news__list.html?bmain=view&uid=9&search=%26page%3D1

12 “시진핑 “중국장미 씨앗 드리겠다” … 트럼프 “9월 24일 백악관 초청”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58858.html

13 “Representatives of over 130 countries, territories confirm participation in SPIEF-2026”
https://tass.com/economy/2137829

14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дальнейшем укреплении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партнёрства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об углублении отношений добрососедства, дружб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http://kremlin.ru/supplement/6487

김현국 탐험가
평화의 길을 찾아 유라시아 대륙을 가다

김현택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명예교수

한국은 인구 대비 국외 여행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이 추세가 곧 꺾이리라는 전문 기관의 예측은 매번 빗나갔다. 무엇이 우리 발걸음을 국외로 향하게 하는 걸까? 여러 요인이 있을 터이나, 대륙 국가이면서 북으로 가는 육로가 단절된 지리적, 아니 지정학적 상황이 먼저 떠오른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차에 올라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인생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있는 것도 그래서일까? 철도가 아닌 도로로 시베리아를 지나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을 향하는 한국인들도 있다. 모터바이크 또는 차량으로 유라시아 횡단 대장정에 나선 모험가들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매년 백 명가량의 우리 여행자가 이 도정에 올랐다니 책상머리에 익숙한 사람한테는 의외다. 그런데 이런 낭만적 여행이 아니라, 러시아를 통과해서 암스테르담에 이르는 도로가 결국 우리나라와 연결되리라고 확신하고 이 경로를 반복 답사하며 무려 30년 동안 자료를 축적해 온 인물이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 연결이 속성인 도로의 중요성에 주목해서, 모터바이크를 타고(한 번은 경차를 이용) 유라시아 대륙을 열 번이나 횡단한 김현국 탐험가가 그 주인공이다.

러시아와 시베리아에 꽂힌 오토바이 여행광이려니 싶었는데, 그게 아니다. 80년대 학번으로 시대적 사명, 우리의 미래 활로, 가치 있는 삶 같은 질문들을 부둥켜안고 혼자서 시베리아와 러시아의 길 위에서 단련한 힘과 정신력이 예사롭지 않다. 부산에서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북한 구간은 막혀 있지만) 러시아 연방 도로와 만나고, 또 이 길이 유럽 관통 도로와 연결되는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을 평생의 연구 과제로 삼고 몸으로 실천해 온 그를 만났다. 탐험가의 자세, 도로를 이용한 민간 차원 이동이 갖는 의미, 길 위에서 그가 만난 러시아와 러시아인, 청년 세대의 도전 과제 등을 얘기하는 그에게서 진정성과 자신감이 느껴졌다. 5월 20일 광화문 RIO Institute에서 인터뷰를 마친 다음, 비를 맞으며 서울의 도로 기준 표지석이 서 있는 장소를 안내하는 그를 따랐다.



광화문 RIO Institute에서 만난 김현국 탐험가 ⓒ RIO

1996년부터 주로 모터바이크를 이용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여러 차례 횡단했다. 인생 버킷 리스트 중 하나로 이 경로 완주에 도전하는 사람은 종종 있어도 김 탐험가처럼 온 몸을 던져 여기에 뛰어든 사람은 없다. 유라시아 탐방을 시작한 계기가 궁금하다.

대학에 입학한 해가 1987년이다. 6월 민주화 항쟁을 보면서 진정으로 노력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걸 느꼈고, 학교 공부보다는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학교 선배들 대부분이 통일 그 자체에 몰두하던 때, 혼자서 나는 통일이 되면 어떤 삶이 열리고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를 상상하고 있었다. 그해 12월 양 김(김대중과 김영삼)의 단일화 실패 후에는 씁쓸한 마음으로 군에 입대했다. 졸병 시절 내무반 침상을 청소하던 어느 날 TV 방송에서 외국 여행 자유화 뉴스가 흘러나왔다. 불현듯 그래 지구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마음먹었다. 제대 후 첫 외국 여행으로 일본을 다녀온 후 곧바로 인도로 향했다.

주로 도보로 이동하면서 3년 정도 인도를 여행했다. 그때만 해도 경주 석굴암이 세계 최고인 줄 알았는데 현재 뭄바이라고 불리는 봄베이에 갔더니 놀라운 유적들이 도시 전체에 널려 있었다. 우물 안에서 처음 바깥으로 나온 거다. 더더욱 놀란 건 인도와 네팔이 만나는 국경 모습이었다. 졸졸 흐르는 실개천이 두 나라 사이의 국경이고, 대나무 하나를 가로로 걸쳐 놓은 표식을 지나면 다른 나라 땅이었다. 현지인들은 국경을 자유롭게 오갔고,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외국 여행자도 국경을 넘을 수 있었다. 군 복무 중에 경험한 남·북한 사이의 경계와는 너무 달라서 충격적이었다. 국경은 모름지기 무장 군인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늘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위험한 곳이 아니던가? 인도 여행 중에 나는 고정 관념이 우리 사고를 얼마나 제한하고 억누르는지 확실히 깨달았다.

> “어떻게 하면 내가 본 인도 이야기를 우리가 사는 한반도와 육로로 연결할 수 있을까 하고 곰곰 생각하던 차에 유라시아 대륙 지도의 중심부에 떡 버티고 있는 러시아, 특히 시베리아가 눈에 확 들어와”

원래 러시아에 관심이 있었나?

그렇지 않았다. 인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땅을 직접 밟으며 관찰했던 주요 지점들을 지도 위에 점으로 표시해서 연결하니 하나의 선이 나타났고, 3년 동안의 경험을 고스란히 담은 나만의 이야기가 자연스레 탄생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본 인도 이야기를 우리가 사는 한반도와 육로로 연결할 수 있을까 하고 곰곰 생각하던 차에 유라시아 대륙 지도의 중심부에 떡 버티고 있는 러시아, 특히 시베리아가 눈에 확 들어왔다. 그 순간부터 시베리아는 내 가슴을 뛰게 했다. 미지의 땅 러시아와 시베리아는 때마침 이뤄진 한·러 수교 덕분에 우리가 직접 발을 디딜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변해있었다. 러시아와 시베리아는 이처럼 내게 불쑥 다가왔다.

1990년대 초 인도를 찾는 유럽 여행자들이 정말 많았다. 청소년 시절부터 인접국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다른 민족과 문화를 만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들의 활달한 모습이 정말 부러웠다. 산업혁명을 거쳐 선진국으로 발전한 유럽 사람들은 유럽 문명이 그사이 상실해 버린 무엇에 대한 갈증을 채우기 위해 인도 땅을 찾았던 것 같다. 인도 여행은 한국인에게 숙명처럼 주어진 400km 길이의 한반도 남쪽 공간을 뛰어넘어 드넓은 대륙으로 내 시선을 향하게 했다.

시베리아 횡단이라 하면 보통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철도를 떠올린다. 굳이 도로 답사를 고집하는 까닭은 뭔가?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 이래 우리 정부가 반복해서 언급하는 게 유라시아 횡단 철도다. 최근엔 북극항로 얘기도 들린다. 철길은 국가 차원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바라보는 하나의 상징적 경로다. 나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도로가 민간 차원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 정해진 시간표대로 출발하고 도착하는 철도와 달리 도로는 개인에게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준다. 러시아의 대표적 물류회사 ‘펙(PEK: Pervaya Ekspeditsionnaya Kompaniya)’이 내세우는 구호도 ‘문에서 문까지’이다. 대형 화물트럭 중심의 물류회사인데, 도로가 갖는 유연성과 편리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과 속도 둘 다 경쟁력을 갖고 있다.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러시아에서 횡단 도로를 활용한 물류 운송이 횡단 열차보다 유리하다는 최근의 통계도 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실제로 달려 본 경험이 많지 않아 여전히 철도 얘기만 하고 있다. 러시아를 동서로 횡단하는 전 구간의 포장도로가 완비된 지금은 간선 도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암스테르담까지 내가 직접 반복 답사하면서 얻은 확신이다. 한때 유행처럼 ‘새로운 시장, 자원의 보고, 기회의 땅’으로 일컫던 러시아가 그저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추상적 공간이 아니고 우리의 구체적 활동 무대가 되려면 한국

청년들이 수시로 이 도로를 따라 여행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야 한다. 러시아와 몸으로 부닥치면서 몇 년을 제대로 공부하면 기회가 열릴 텐데 그저 안전하고 편한 길만 좇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인터뷰 중인 김현국 탐험가 ⓒ RIO

여태껏 수행한 유라시아 대륙 답사 이력을 듣고 싶다.

1996년 모터바이크로 시베리아를 처음 횡단한 이래 2023년까지 모두 여섯 번 답사했다. 그중 네 번은 암스테르담을 찍고 다시 돌아오는 왕복 횡단이었으니, 횟수로는 유라시아 대륙을 열 번 종주했다. 이 경로를 다녀온 분들의 콘텐츠가 이따금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하나같이 빠른 속도로 유라시아 횡단 도로를 완주했다는 '인생 여행' 경험담이다. 이 또한 의미 있지만, 내가 강조하는 건 육로를 이용한 유라시아 대륙 여행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답사를 관통하는 공통 주제는 '유라시아 횡단'이었고 매번 같은 길을 따라 이동했다. 완주 횟수 기록을 세우는 게 목표는 아니고, 이 길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였다. 첫 여행 준비 중에 시베리아를 통과해서 사할린섬에 이르는 안톤 체호프의 이야기를 읽었고 그 영향을 받아 이동 수단으로 모터바이크를 선택했다. 말 두 필이 끄는 마차를 타고 1890년 시베리아를 횡단한 체호프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는 현대판 말에 해당하는 모터바이크로 이 길에 나서기로 했다. 1996년 첫 답사는 소련 해체 후 러시아 사회가 겪던 온갖 혼란과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체험한 무척 힘든 여정이었다. 유라시아 횡단 시리즈의 개막 편에 해당하는 1996년 '시베리아, 그 미래와의 만남'에 도전한 다음에는, 2001년 '변화에의 도전, N 실크로드 대장정', 2014년 '칭기즈 칸의 속도, 유라시아 그 미래와의 만남', 2017년 '유라시아 마실, 시베리아 그 미래와의 만남', 2019년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 2023년 '길은 평화다!—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 등으로 답사가 이어졌다.



2019년 다섯 번째 유라시아 대륙 횡단 중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 김현국

2001년에 수행한 'N 실크로드 대장정'에서 N은 뭘 뜻하나?

디지털 패러다임의 등장과 함께 'New', 'Network', 'Nomad' 등의 개념을 담았다. 2023년의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을



시베리아에서 도로 안내 표지 앞에 잠시 멈췄다. © 김현국

제외하면 모든 답사를 모터바이크로 했다. 2023년 현대자동차의 캐스퍼를 몰고 겨울에 시베리아로 떠날 때는 우리 경차로도 혹한의 동토 통과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2014년 한·러 양국 간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자 모터바이크와 차량으로 유라시아 대륙 횡단 길에 나서는 여행자들이 나타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그 수가 일 년에 백여 명을 헤아렸다. 2017년 답사 출정 때는 동해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행 여객선을 기다리는 9명의 바이커와 자동차 여행자를 만났다. 그중 60대 중반 나이의 어르신 한 분은 아무래도 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았다. 반짝반짝 빛나는 최신 모델의 모터바이크를 타고 간편한 복장에 신용카드 한 장을 들고 바이칼호수 왕복 여행에 나선 이 멋쟁이 아저씨는 러시아 실정을 너무 몰랐다. 안 되겠다 싶어 블라디보스토크부터 내가 에스코트하면서, 연료를 넣고 중간중간 식사도 하고 또 숙소에 투숙하는 요령들을 '교육'했다. 여행 중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 사항도 신신당부했다. 내심 계속 함께 달리기를 원하던 그분과 하바롭스크에서 작별했다. 거기서부터 바이칼까지는 당신 혼자도 다녀올 수 있다고 설득해서 떠나 보냈는데, 훗날 한국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보름 남짓이면 자가운전이나 모터바이크로 멋진 바이칼 왕복 여행을 유라시아 대륙에 마실 가듯 다녀올 수 있다는 내 구상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캠핑카와 글램핑족이 부쩍 늘고 있는 최근 분위기를 보면 유라시아 대륙으로 떠나는 도로 여행이 장차 활성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2022년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이라는 책을 냈다. 이 도로가 왜 중요한가?

2019년 답사 주제를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으로 잡은 이유가 있다. 그때까지 같은 길을 반복 이동하면서 기록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모두가 수긍하는 구체적인 도로 네트워크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내가 집중적으로 자료화 작업을 해온 시베리아를 통과하는 유라시아 횡단 도로는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가 주관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프로젝트와 유럽 경제사회위원회(EESC: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가 주관하는 유럽 30번 도로와 서로 연결되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따라서

> "캠핑카와 글램핑 족이 부쩍 늘고 있는 최근 분위기를 보면 유라시아 대륙으로 떠나는 도로 여행이 장차 활성화될 가능성은 충분"

>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한반도에서 온 나는 연결의 속성을 지닌 길이 결국 우리를 평화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고 현지 언론인도 공감을 나타내”

부산을 기점으로 동해안을 따라 대륙으로 향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이 내용을 2023년 뉴욕에 있는 ‘탐험가 클럽(The Explorers Club)’에서 발표했고, 모스크바와 베를린의 일부 언론도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였다. 인터뷰 중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한반도에서 온 나는 연결의 속성을 지닌 길이 결국 우리를 평화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고 현지 언론인도 공감을 나타냈다. 남한과 북한 둘 다 아시안 하이웨이 프로젝트 회원국이다. 따라서 언젠가는 비무장지대(DMZ) 구간 4km를 통과하는 평화의 길이 뚫리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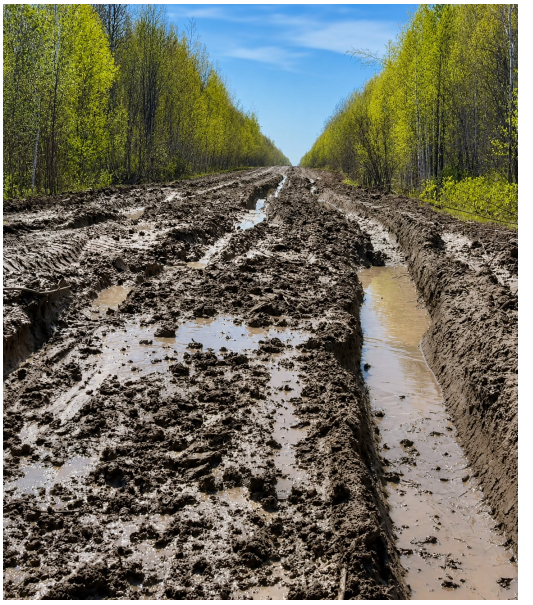
2022년 발간한 단행본 표지 ⓒ 김현국

한국에는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과 6호선이 있다. 6호선은 부산에서 출발해서 원산, 라진과 선봉을 거쳐 시베리아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뻗어나간다. 1호선은 베이징과 동남아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경로인데, 중국은 모터바이크나 차량을 이용한 국경 통과를 허락하지 않는다. 남과 북의 길이 연결돼야 한다는 실로 어려운 과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도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아무튼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이다.

모터바이크로 첫 답사에 도전한 1996년과 비교하면 현재의 세상은 인터넷과 위성지도, 내비게이션과 인공지능(AI) 등 빠른 기술 변화 덕분에 크게 달라졌다.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스며든 지금도 직접 도로를 달리는 답사가 여전히 중요한가?

비슷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역으로 이렇게 묻고 싶다. 만약 어떤 교수가 학생들에게 현장에 나갈 필요 없이 강의실에서 배운 것만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물론 온라인상에 무수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고, AI를 활용해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며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도 길 위에서 사람이 실제로 관찰하고 체험하면서 누적한 구체적 활동과 기록이 없으면 안 된다. 구경하고 즐기는 여행이 아닌 목적이

분명한 답사는 예나 지금이나 특별한 의미가 있다. 패인 구덩이가 산재한 도로에서 바이커와 운전자가 땅거미 질 무렵 불시에 만날 수 있는 위험은 실제로 현장을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러시아에 갔더니 사람들은 투박하고 무뚝뚝해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샤슬릭과 보드카를 대접하는 따뜻한 인정도 있더라는 투의 추억담은 '인생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면 누구나 전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 현실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들과 부대끼며 지내고, 황량한 길 위에서 퍼붓는 소나기와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를 통과하는 중에도 장차 이 길을 밟게 될 다른 이들을 위해 기록을 남기는 탐험가는 다르다.



비포장 시절의 시베리아 자바이칼 지역 모고차 인근 지방도로 ⓒ 김현국

뉴욕에 있는 '탐험가 클럽(The Explorers Club)'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회원 중에 쟁쟁한 인물들이 많은데, 유라시아를 횡단한 본인 활동의 어떤 면을 평가했다고 보나?

1904년 출범한 단체로 전직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교수, 기자, 탐험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회원이다. 인류에게 익숙한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시야 확장에 이바지했느냐가 가입의 주요 기준이다. 세계 최고봉, 극한 환경의 오지, 심해, 우주에 도전한 사람 등이 그렇다. 남극점에 최초로 도달한 로알 아문센, 비행기로 대서양을 건넌 찰스 린드버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에드먼드 힐러리 경 등이 회원 명단에 들어 있고, 최근 민간 우주인 시대 개척에 나선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블루오리진의 제프 베이조스 등도 회원으로 있다. 민간인 최초로 우주선을 탔던 게임 개발자 리처드 개리엇이 얼마 전까지 회장직을 맡았다. 영화 「아바타」를 제작하면서 해저 탐사 분야 최고 전문가가 된 제임스 캐머런 감독도 회원이다.

한국에도 당연히 도전과 탐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탐험 분야에서 주도권을 쥔 건 대체로 서양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에 버금가는 이등만 하면 족하다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내로라하는 산악인들이 있지만, 에베레스트 등정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경로를 산소통 없이 올라 큰 족적을 남긴 라인홀트 메스너 같은 인물은 정말 드물다. 누가 앞서 개척한 경로를 이용해서 가장 짧은 기간에 14좌에 오른다는 목표는 창의적인 개척의 모범은 아니다. 내가

"한국에도 당연히 도전과 탐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탐험 분야에서 주도권을 쥔 건 대체로 서양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에 버금가는 이등만 하면 족하다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 “심사 과정에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된 결정적 계기는 한국전쟁 발발로 시작된 냉전 시대 동안 철저히 폐쇄됐던 시베리아 공간을 한국 민간인이 최초로 답사하고 자료화했다는 사실”

만난 한국의 철학 교수 한 분은 선도 국가의 핵심은 창의성이라고 명료하게 설명한 바 있다.

유라시아 횡단 도로 종주에 나선 나를 두고 과연 탐험가인가 묻는 사람이 많다. 시베리아를 오토바이 타고 쌩 달린 게 무슨 탐험이냐는 얘기다. 2023년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 때도 기자는 당신의 활동은 모험은 될지언정 탐험은 아니라고 했다. ‘탐험가 클럽’ 회원 가입을 신청했을 때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 나는 이렇게 반문했다. 1996년 이전에 모터바이크로 시베리아를 횡단한 사람이 있느냐? 「스타워즈」 시리즈에 출연했던 이완 맥그리거 얘기를 그들이 슬며시 꺼내기에, 사실 그 사람은 나보다 10년이 늦다고 구체적 사실을 제시했다. 심사 과정에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된 결정적 계기는 한국전쟁 발발로 시작된 냉전 시대 동안 철저히 폐쇄됐던 시베리아 공간을 한국 민간인이 최초로 답사하고 자료화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동안 정리한 자료들을 보여줬더니 자격이 충분히 있다면서 흔쾌히 받아줬다. 이 클럽 회원 자격 자체가 탐났던 건 아니고,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패권국가인 미국의 중심 도시이자 UN 본부가 있는 도시이기도 한 뉴욕에 한국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소통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해서였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에 이르는 러시아 연방 도로를 열 번 완주했다. 과거와 비교할 때 도로와 주변 인프라 등에 큰 변화가 있는가?

1996년에 갔을 때는 냉전의 흔적이 뚜렷했다. 소련 시대에 대중의 원거리 이동은 철도로만 가능했다. 따라서 도시를 벗어난 도로는 관리가 안 된 상태였고, 군사 목적 도로가 대부분이었다. 어떤 구간은 풀밭처럼 방치되어 있었고,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구간들도 있었다. “러시아에 바보는 많고, 길은 없다”라는 자조적인 표현도 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2010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도로가 건설된 것이다. 그해 8월 27일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아무르 연방 도로 주행에 나섰다. R297 아무르 연방 도로는 치타에서 하바롭스크까지 가는 2,165km의 길이다. 라다 칼리나의 운전대를 잡은 푸틴 총리는 사흘 동안 도로를 달렸다. 그리고 9월 24일 하바롭스크 시내 레닌 광장에서 아무르 연방 도로 준공식이 열렸다. 개인적으로 푸틴을 위대한 인물로 여기는데, 그가 1만km에 달하는 러시아 횡단 도로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유럽 전체 관통 도로는 2천km에 불과하다.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러시아 연방 도로가 완성됨으로써 북한 구간을 뺀 암스테르담에서부터 부산까지 길이 연결됐다. 2010년에 완성된 도로는 일부 비포장 구간도 있었는데, 2019년 다섯 번째 횡단 때는 전체 구간의 포장을 확인했다. 큰 연교차와 악천후로 인해 도로 파손율이 높아서 보수공사가 잦긴 하지만, 2023년 답사 때는 간선 도로 주변 인프라가 제법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1 2010년 라다 칼리나를 타고 R297 아무르 연방 도로를 주행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총리 ⓒ 위키피디아
2 붉은색 표시 부분이 2010년 완공된 R297 아무르 연방 도로 구간 ⓒ 위키피디아

것도 목격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유소와 편의점, 모텔과 정비소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와 비교할 수준은 아니어도 자가운전 여행자에게 필요한 여건은 마련된 상태다. 아직은 승용차 이동량이 그리 많지 않아 대형 트럭 위주의 인프라가 대부분인데, 이런 상황 또한 누군가에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원거리 이동을 몇 달씩 하다 보면 위험한 일도 겪었을 것 같다.

대륙 횡단이 직업이고 떠날 때마다 사전 준비에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데 까딱 잘못해서 사고라도 나면 모든 게 끝장이다. 더구나 오토바이 사고는 치명상을 동반한다. 시베리아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안톤 체호프처럼 자작나무 아래 모닥불 피우고 밀크커피 한잔 마셔야겠다는 꿈은 턱도 없는 환상이다. 혼자 시베리아 도로에 올라선 순간 이런 낭만일랑 깨끗이 잊어야 한다.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술과 밤 문화 따위에는 얼씬거리지도 말아야 한다. 먼 길을 떠나는 순례자처럼 저녁 10시에 무조건 눕고, 아침 6시면 칼 기상이다. 대륙 횡단은 외로운 마라톤과 같아서 힘의 배분과 조절 능력이 없으면 그냥 무너진다. 2014년 답사 때는 탈진 상태에서 노천 잠을 자는 등 리듬이 깨지면서 향수병에 시달린 적이 있다. 동쪽만 바라보면 헛것처럼 서울이 떠올랐다.

도로를 맘껏 질주하는 여느 바이커와는 달리, 사진을 찍고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세울 때마다 느끼는 고통은 나 말고 아무도 모른다. 관성처럼 앞으로 내닫는 모터바이크를 정지시킨 후 3분여 만에 탐험가의 업무를 요령껏 수행하는 일은 대단한 인내심을 요구한다. 언젠가 길에서 만난 러시아 바이커는 그런 나를 보고, "김, 너 그러다가 러시아 길에 잡힌 포로가 돼"라고 외쳤다. 호랑이와 곰이 사는 타이가 숲 사이로 뚫린 도로를 총알처럼 달려도 해지기 전 다음 마을에 닿기 어렵다는 걸 아는 그인지라 정말 걱정해서 한 말이었다. 한번은 새벽에 노보시비르스크 시내를 출발했는데 도로 사정으로 오후 2시가 돼서야 겨우 시 외곽으로

> "시베리아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안톤 체호프처럼 자작나무 아래 모닥불 피우고 밀크커피 한잔 마셔야겠다는 꿈은 턱도 없는 환상"





1 비포장 상태의 도로를 달리다가 모터바이크에서 잠시 내려서 ⓒ 김현국
2 답사 중 도로변 음식점에서 주문한 간단한 식사. 어디든 앉으면 자료 기록 노트부터 펼친다. ⓒ 김현국

빠져나와 잠시 바이크를 세웠다. 바이커들 사이에는 끈끈한 형제애가 있어서 아무리 갈 길 급해도 짧게라도 인사를 나누는 불문율 같은 게 있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던 체코인 바이커가 잠시 멈추는 듯하더니 눈빛만 주고 그대로 왱하며 떠나버렸다. 저 멀리 사라지는 작은 점을 바라보던 나는 순간 멍해졌다.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

이보다 견디기 어려운 건 시베리아 벌판에서 만나는 말파리 떼의 공격이다. 슬레펜이라고 불리는 말파리들이 달려들면 피부가 찢어지는 통증으로 미칠 지경이다. 제아무리 양손을 휘두르며 때려잡아도 얘들은 '그래, 죽어도 좋아' 하며 온몸에 달라붙는다. 두 눈 속으로는 초파리 떼가 파고든다. 시원스레 뚫린 도로를 바람처럼 달리는 모터바이크 위에서 드넓은 하늘과 야생 타이가 숲의 풍경을 즐기는 사치는 나의 시베리아와는 거리가 멀었다. 내가 선택한 길은 달랐다.

끝없는 도로 위에서 느끼는 외로움 속에 자신을 지탱해 준 힘은 무엇인가?

앞서 말했듯 러시아에서 모든 바이커는 서로에게 형제다. 만나면 소중한 친구처럼 극진하게 대한다. 호주머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지방 도시 바이커들도 가진 걸 모두 내놓고 도와준다. 현지 바이커들이 러시아를 대표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횡단 여행 중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게 선뜻 손을 내민 이들의 순순한 인간미 덕분에 힘을 얻을 수 있었다. 한번은 모터바이크 사고 현장을 만났는데 큰 사고였다. 심각한 부상으로 자기 몸을 추스르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바이커는 망가진 모터바이크를 애마처럼 일으켜 세운 다음 주변의 만류에도 직접 끌기 시작했다. 이 남자의 담대함과 용기에 고개를 숙였다.

마초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는 러시아 바이커들은 첫인상과 달리 예의가 아주 바르고, 국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맨 앞에 서는 애국자들이기도 하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 러시아 바이커들은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자신들의 응집력을 과시하기 위해 세바스토폴에서 국제

>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던 체코인 바이커가 잠시 멈추는 듯하더니 눈빛만 주고 그대로 왱하며 떠나버렸다. 저 멀리 사라지는 작은 점을 바라보던 나는 순간 멍해져"




1 2014년 열악한 도로 환경 취재에 나선 러시아 방송국 프로젝트팀과 만나, 연해주 지역 도로변에서 인터뷰에 응했다. ⓒ 김현국
2 여행자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러시아 바이커들과 함께 ⓒ 김현국

모터바이크쇼를 열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서쪽으로 이동하던 도중 나는 러시아 각지를 떠나 크림반도로 줄지어 향하는 모터바이크 행렬을 봤다.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는 저녁과 새날을 시작하는 아침에는 휴대한 성경 구절을 읽는 일을 거르지 않았다. 대륙 횡단이 주요 목표였지만, 내면적으로는 광야 훈련을 받는 자기 성찰의 긴 여정이기도 했다. 시베리아가 나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도 든다. 새로운 개척을 향해 내가 선택한 땅 시베리아는 나를 수많은 괴로움과 번민에 빠지게 했다. 그 시베리아의 길 위에서 나는 경계를 허무는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도 체득했다.

기후가 혹독하고 원시 자연의 힘이 넘치는 시베리아가 우리에겐 낯설다. 본인이 체험한 시베리아는 어떤 곳인가?

내게 각인된 시베리아는 '불타는 시베리아'다. 답사 때마다 화재 현장을 보았다. 인간의 실수에 의한 것이거나 마른 번개가 때려서 일어난 불이었다. 환경 훼손으로 시베리아는 극심한 몸살을 앓는 중이다. 러시아에서 무슨 자원을 가져올 궁리만 하지 말고 인류 공통의 자산인 바이칼, 자바이칼 자연보호 지역 등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봉사 활동에 뛰어드는 한국 청년도 나왔으면 한다.

시베리아의 여름은 짧고 겨울은 무척 길다. 그래서 여름 3개월 동안 모든 생물은 온 힘을 다해 자신을 생육한다. 식물들은 서둘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여름에 계속 화재가 발생하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2019년 여름에는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에서 남한 전체 면적 규모의 엄청난 산불이 발생했다. 노보시비르스크까지 가는 일주일 내내 해가 보이지 않았다. 평화롭게 무리 지어 서 있는 자작나무도 다가가 보면 밑동은 시커먼 상흔이 가득하다.

고통받는 시베리아 땅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도 있다. '제믈랴니카'라는 야생 딸기 얘기다.

> "새로운 개척을 향해 내가 선택한 땅 시베리아는
> 나를 수많은 괴로움과 번민에 빠지게 했다. 그 시베리아의 길 위에서
> 나는 경계를 허무는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도 체득"




1 평화롭게 서 있는 시베리아 들판의 자작나무 밑동에는 화재로 입은 시커먼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다. © 김현국
2 드센 잡초들 속에서 열매를 맺은 시베리아 야생 딸기 © 김현국

러시아 사람들은 운전하다가 숲이 나오면 휴식 겸해서 버섯과 야생 열매를 따러 들어간다. 들고 나오는 바구니에는 큼지막한 버섯과 작디작은 야생 딸기가 가득하다. 못생긴 이 야생 딸기를 입안에 넣으면 정말 꿀맛이다. 겨울에 찻숟가락으로 뜨는 야생 딸기잼의 향기도 일품이다. 드센 잡초들에 치여 기를 못 펴고 땅에 바싹 달라붙어 기어가듯 살아가는 이 야생 딸기는 시베리아 여름 햇볕을 받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조그만 열매가 자기 안에 지구를 품고 있어서 '제믈랴니카'라는 이름을 얻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힘에 부칠 때마다 시베리아 들판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빨간 야생 딸기, 그 작은 존재를 떠올린다.

현지에서 만난 러시아인들에 대한 인상은……

많은 이가 러시아 사람은 폐쇄적이고 소통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2013년 《베를리너 차이퉁》과 인터뷰 때 기자도 그렇게 물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만난 러시아 사람들은 퍽 개방적이었다. 11개 시간대를 가진 열린 공간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다. 모터바이크로 대륙 횡단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느 때는 하루에 열 번씩 소나기를 만난다. 비가 걷히고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 피부가 벗겨지듯 따갑다. 그 위에 흙먼지를 온통 뒤집어쓴 바이커의 몰골은 영락없는 거지다. 도로 위에서 어쩌다 만난 한국 바이커는 초라한 행색의 나를 피하려 들지만, 러시아인들은 이게 바로 여행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지 자기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가라고 앞장을 선다. 시베리아에서 혼자 먼 길을 나서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에 본능적으로 마음을 여는 게 아닌가 싶다.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8절에는 "또한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이방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는 분이시다"라는 구절이 있고, 칭기즈 칸의 몽골 제국 법전에도 "여행자와 손님을 조건 없이 환대하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

이래저래 친분을 쌓은 러시아 친구들을 보면, 한 분야만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하는 전인교육을 받은 것 같았다. 내 또래의 친구들은 공부 잘해서 이름 있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현재 삶에 더 만족하고 즐기는 태도였다. 우리라면 설악산, 지리산 정상에 올라가는 일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 법도 한데, 러시아 아이들은 나 히치하이크로 야쿠츠크 갔다 왔어, 다음엔 무전여행으로 캄차카반도 갈 거야 하는 식이다. 러시아 남자들의 사자와 같은 당당함, 묵직함, 기개가 부럽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은데 그 넉넉한 표정과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직도 수수께끼다.

러시아어를 언제 배웠으며, 매번 답사에는 준비기간이 얼마나 필요한가? 소요 경비는 어떻게 마련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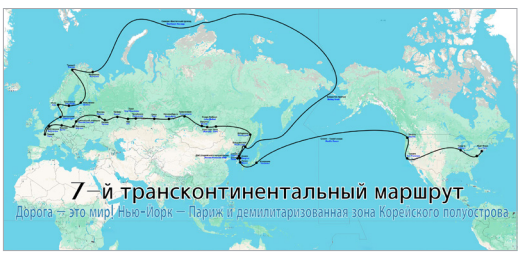
2023년 경차 캐스퍼를 이용한 겨울 답사 때 모스크바 붉은 광장을 배경으로 ⓒ 김현국

군청 소재지 출신으로 지방 대학 법학과를 졸업했고, 러시아어를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없다. 1997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 학장이 나를 기특히 여겼는지 기숙사에 살면서 예비 학부 과정에서 러시아어를 배워보라고 했다. 모스크바 근교의 과학도시 두브나에 있는 대학에서도 짧은 기간 러시아어를 공부했다. 전공자들처럼 유창하게 러시아어를 구사하겠다는 욕심은 아예 없었다. 깜냥도 안 되지만, 내가 하는 일은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배짱이 있었다. 암스테르담까지 갔다가 오는 왕복 답사에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준비기간은 그보다 몇 배 더 걸린다. 답사에서 돌아오면 바로 다음 답사 준비에 착수한다고 보면 된다. 경비 조달은 대부분 혼자 힘으로 감당하고, 어디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은 적은 없다. 부자는 아니어도 내 일에 힘을 보태주는 정말 고마운 분들은 몇 명 있다.

2026년 가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리는 국제청년축제(IFY: International Festival of Youth)에 초대받았다고 들었다.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가? 그다음엔 어떤 답사가 기다리고 있나?

러시아가 주관하는 국제청년축제 사무국 관계자들과 지난 3월에 화상 회의를 했다. 사무국은 내가 현재 준비 중인 제7차 유라시아 대륙 횡단 프로젝트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고, 그 준비 단계로 올해 예카테린부르크 국제청년축제 때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9월 초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 측이 제공하는 라다 자동차를 받아서 이 차량으로 거점 도시들을 통과해서 예카테린부르크에 도착하는 홍보 행사다. 7천여km를 달리면서 주요 도시에서 현지 언론과 인터뷰하고, 개막식장에서 축사도 할 계획이다.

현재 준비 중인 제7차 유라시아 대륙 횡단은 지금까지의 답사를 총결산하는 마무리에 해당한다. 뉴욕을 출발점으로 미주 대륙을 횡단해서, 한국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통과하여 파리까지 간 다음, 돌아오는 길에 북극항로 운항 선박에 자동차를 싣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서 한국으로 향하는 경로다. 결국엔 북한을 통과해서 육로로 한국에 도착하는 게 꿈인데, 제대로 될지 미지수이다. 러시아산 자동차로 전 구간을 이동하는 이 긴 답사 여행이 분단된 한반도를 도로로 연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미국과 유럽, 러시아에 두루 알리는 상징적 행사가 됐으면 한다. 이게 성사되려면 러시아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제7차 대륙 횡단을 마치면, 그동안



현재 계획 중인 제7차 답사 이동 경로. 뉴욕에서 파리까지 간 다음 북극항로를 통해 한국에 돌아오는 경로에 도전할 계획이다. ⓒ 김현국

>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무엇을 향한 갈망도 있어야 한다. 시베리아에서 나는 조금이나마 이걸 감지했고, 1996년 첫 답사로 시작된 기나긴 여정이 내게 준 소중한 선물로 간직”

축적한 자료와 콘텐츠를 활용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에서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과 활성화에 전념할 계획이다.

한국의 청년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베리아에 가면 바다처럼 넓은 울창한 침엽수림 타이가가 있다. 평원을 달리는 내 시야에 세상이 다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볼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살면서 우리가 보고 인식하는 구체적인 삶만이 전부가 절대 아니라는 걸 나는 시베리아에서 절실히 느끼고 깨달았다. 너무 크거나 작아도 안 보이고, 너무 밝거나 어두워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무엇을 향한 갈망도 있어야 한다. 시베리아에서 나는 조금이나마 이걸 감지했고, 1996년 첫 답사로 시작된 기나긴 여정이 내게 준 소중한 선물로 간직하고 있다.



인터뷰를 마치고 광화문에 있는 도로 원표 기둥 옆에서. 원래 이순신 장군 동상 자리에 있었는데 광화문 종로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앞 현 위치로 옮겨졌다. ⓒ RIO

크렘린의 '액션맨'
푸틴의 이미지 연출 소사

라승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푸틴의 육체 정치

대통령 다섯 번과 상왕 총리 한 차례 역임을 포함해 올해로 집권 26년을 맞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약 20년 전인 2007년은 현재까지 그의 사반세기 이상 정치 여정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는 대전환점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평가되곤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2007년은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 세계를 향해 오랫동안 품어 왔던 불만과 원한(Ressentiment)의 감정을 푸틴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작심한 듯 분명하게 표출했던 해로 기록된다. 그해 2월 10일 푸틴은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국제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자국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군비 경쟁과 새로운 분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는 미국 중심의 일극 세계 질서를 해체하고 다극적 국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

또한, 그는 동유럽 국가들로 향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확장을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도발로 규정하며 NATO의 동진 정책을 비난했다. 앙겔라 메르켈, 존 매케인



2007년 2월 10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연설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위키피디아

등 서방 세계 정치 지도자들은 앙심을 품은 듯한 푸틴의 이런 연설 내용과 태도에 충격을 금치 못했고, 러시아의 향후 정책에 불안감과 경계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2007년 푸틴의 뮌헨 연설 이후 1년여 만인 2008년 8월 조지아 전쟁이 일어났고, 2014년 3월에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으며, 2022년 2월에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이 모든 사건 발생의 공통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2007년 뮌헨 연설에서 푸틴이 지적하고 비판했던 NATO의 동진 팽창에 대해 안보 위협을 느낀 러시아의 불가피한 반응이나 대응으로 설명되곤 한다.

이처럼 푸틴은 2007년 뮌헨안보회의에서 적대적이다 싶을 정도로 대담한 연설 내용으로 서방 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해 푸틴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일은 그의 말뿐만이 아니었다. 2007년 여름 푸틴은 측근들과 함께 시베리아 투바 공화국 산과 강에서 휴가를 보냈고 이때 사상 처음으로 상의를 벗은 자신의 강건한 육체를 보란 듯이 자연을 배경으로 카메라 앞에 과감하게 노출하여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순식간에 전 세계 뉴스의 중심을 차지했다. 이는 한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같은 해에 자신의 말에 이어 몸으로 세계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연달아 끌었던 사건으로, 현대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한 일로 기록될 만하다. 이런 점에서, 2007년은 푸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개인적 숭배와 정치적 지지를 끌어낼 목적에서 자기 육체를 의식적·의도적으로 이용해 온 이미지 연출 작업에서 본격적인 출발점이

> “2007년은 푸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개인적 숭배와 정치적 지지를 끌어낼 목적에서 자기 육체를 의식적·의도적으로 이용해 온 이미지 연출 작업에서 본격적인 출발점”

됐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푸틴은 이미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국가보안위원회(KGB) 제복을 벗은 순간부터 현재까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해 왔지만, 그가 강력한 육체적 카리스마로 이미지 변화를 시도하여 대성공을 거둔 것은 2007년 8월 여름 휴가 때부터였다.

'남자의 남자, 푸틴'

'푸틴은 어떻게 이미지의 대가가 됐는가?'라는 지난 5월 말 기사에서 브리지트 켄달 BBC 방송 전 모스크바 특파원은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시각적 이미지의 힘을 잘 파악해 왔다"[2]라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푸틴은 바로 2007년부터 시각적 이미지 연출의 묘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특히 이때 상의를 벗은 채 러시아판 말보로맨처럼 말을 타거나, 강에서 플라이 낚시를 하거나, 접영으로 힘차게 수영하거나 하며 근육질 몸매를 과시했다. 실제로 이때부터 푸틴은 8월 여름 휴가철이면 시베리아 산과 강을 찾아 나섰고, 그때마다 그가 상반신을 탈의한 채 뽐낸 근육질 몸매를 찍은 사진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 대량으로 유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푸틴은 2007년 여름에 처음으로 상의를 벗은 채 시베리아 투바 공화국 자연을 누비는 모습을 보여줬고, 곧이어 2009년과 2010년에도 같은 기간 같은 곳을 방문하여 탄탄한 몸매의 상반신을 노출하는 '액션맨' 행보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푸틴이 상의 탈의한 채 군복 차림으로 시베리아 산하를 활보하며 보여준 건강한 육체미와 군사화한 남성미를 담은 사진들은 그의 개인적 자신감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보는 이들에게 위대한 조국의 광활한 영토를 통제하고 보호하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국가 지도자의 이상적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손색이 없었다. 이런 배경에서 당시 러시아 일간지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는 '푸틴처럼 돼라!'라는 기사 제목 아래 상의를 벗은 푸틴의 대형 컬러 사진을 싣고 독자들이 푸틴과 같은 상체를 만들라고 권하기도 했다.[3]



2007년 8월 13일 시베리아 투바 공화국 켐치크강에서 상의를 벗고 낚시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러시아 대통령실

이처럼 푸틴이 시베리아 자연을 무대로 보여준 '액션맨' 행보의 시각적 이미지 연출에서 주목할 지점은 러시아 국민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동시에 그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모으는 푸틴의 정치적 카리스마를 구성하는 주요 방식이 바로 강인한 남성성의 발현이나 재현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은 푸틴의 강인한 남성성이 언제나 건강하고 매력적인 그의 육체 과시에서 나왔다는 사실

> “푸틴의 남성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 그의 근육질 몸매에서 발휘되는 육체적 카리스마이며,
> 이는 다시 푸틴을 러시아의 진정한 사나이이자
> 러시아 남자들의 본보기로 만들어줘”

이다. 물론, 푸틴은 2000년 5월 7일 대통령직에 취임하고 나서 2년 만인 2002년에 나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푸틴 같은 사람」이란 대중가요를 통해 진정한 사나이이자 이상적인 남성상으로 칭송받기 시작했다. 이 노래는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룹에서 만들어 부르면서 대중에게 순식간에 널리 퍼져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푸틴처럼 활력이 넘치는 사람 / 푸틴처럼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 푸틴처럼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 / 푸틴처럼 도망가지 않는 사람”으로 표현되는 노래 후렴구는 소련 붕괴 이후 1990년대를 거치면서 남성성이 크게 약화한 러시아에서 ‘절주하고 활력 넘치고, 책임감 있는’ 남자의 본보기로 바로 푸틴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때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푸틴이 ‘멋진 남자’의 본보기가 되기까지는 상의 탈의한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육체적 카리스마라는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푸틴의 남성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의 근육질 몸매에서 발휘되는 육체적 카리스마이며, 이는 다시 푸틴을 러시아의 진정한 사나이이자 러시아 남자들의 본보기로 만들어줬다.

앞서 지적했듯이, 푸틴이 상체 노출을 통해 강력한 육체적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그의 남성성을 완성하고 이를 자신의 소중하고 효과적인 정치적 자산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2007년 여름이었다. 흥미롭게도 바로 이 시점 이후부터 푸틴은 러시아 남자들의 본보기를 의미하는 ‘남자의 남자’로 불리기 시작했다. 2007년 중국에서 출판된 푸틴 전기의 한국어 번역판이 같은 해 11월 말에 『남자의 남자, 푸틴』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 책의 소개문은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으로서가 아닌 한 남자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남자다운 매력과 진정한 사나이로서의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기 때문에 책 제목으로 ‘남자의 남자, 푸틴’을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책은 푸틴의 남자다운 모습을 전 세계 남성들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 책은 푸틴의 매력적인 남성성이 그의 강력한 육체적 카리스마에서 나온다는 점을 특별히 주목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이 책이 러시아의 진정한 사나이로서 푸틴의 남성적 면모를 부각하며 ‘남자의 남자, 푸틴’이라는 제목을 달고 2007년 말에 나왔다는 사실은 그 해가 ‘이미지의 대가’로서 푸틴의 정치적 여정에서 커다란 분수령이 됐음을 뒷받침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와 비슷한 시점에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에서 푸틴을 ‘올해의 인물’로 처음 선정한 것도 절대 우연은 아니었을 것이다.

‘프로파간다 육체’

앞서 언급했듯이, 2007년 여름 푸틴은 시베리아 투바 공화국 산하에서 휴가를 보냈고 이때 그가 처음으로 상의를 탈의하고 찍은 근육질 몸매 사진은 육체를 통한 시각 이미지 연출의 정치적 활용을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로 꼽혔다. 당시 푸틴의 여름휴가 사진에는 시베리아 투바

공화국의 테레-홀 호수에 있는 포르-바진 요새에서 모나코 왕국의 알베르 2세 왕자와 세르게이 쇼이구 당시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이자 러시아 지리학회 회장을 비롯한 러시아 국내외 유명 인사들과 함께 있던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 이 휴가 기간에 푸틴은 처음으로 상의를 벗은 모습이 포착됐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8월 13일 상의를 벗은 푸틴이 예니세이강에서 낚시하던 모습과 켐치크 강가에서 그가 물을 마시려고 쪼그려 앉아 있던 모습, 8월 15일 켐치크강 근처를 활보하던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때 상의 탈의한 채 미국식 군복 바지에 부츠를 신고, 목에 군용 식별표를 걸고 허리춤에 단검을 달고 보무도 당당하게 서 있는 푸틴의 시각 이미지는 육체적 카리스마가 넘치는 군사화된 남성성을 제대로 포착해 표현한 것으로 평가됐다.[4]

이로부터 10년 뒤인 2017년 8월 초에 푸틴은 시베리아 투바 공화국을 다시 한번 방문하여 여름휴가를 즐겼다. 당시 그는 시베리아 강에서 낚시도 하고 수영도 즐겼으며, 시베리아 산악을 활보하는 하이킹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푸틴의 주변에는 그의 휴가 때마다 동행했던 세르게이 쇼이구 당시 국방부 장관과 빅토르 지민 하카시야 공화국 수장, 숄반 카라-울 투바 공화국 수장 등 러시아 고위 인사들이 함께 있었다. 특히, 푸틴은 10년 전처럼 이때도 고도의 시각적 이미지 연출을 통해 강력한 육체적 카리스마를 내뿜는 '액션맨' 행보를 선보였다. 상의를 벗은 채 군복 차림으로 낚시하는 푸틴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은 그가 6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탄탄한 육체적 면모와 남성적 매력을 간직하고 있음을 여실하게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푸틴이 2018년 네 번째 대선 출마를 앞두고 러시아를 이끌 지도자로 자신이 적임자임을 선전할 목적으로 10년 전과 똑같이 믿음직한 국가 지도자로서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건강한 육체미와 강력한 남성성을 보여주는 시각적 연출 작업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는 푸틴이 강력한 남성성을 드러내는 육체적 카리스마의 시각적 이미지 연출을 대선 승리 등



2007년 8월 15일 시베리아 투바 공화국 켐치크 강가를 걷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러시아 대통령실

> “푸틴은 강인한 남성성을 드러내는
> 육체적 카리스마의 시각적 이미지 연출을 대선 승리 등
> 정치적 목표 실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치적 목표 실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음을 뒷받침한다.

2018년 대선 운동에서 푸틴이 내세운 구호는 바로 ‘강력한 대통령, 강력한 러시아’였다. 이 말은 ‘강력한 대통령’이 ‘강력한 러시아’를 이끌 수 있다는 뜻으로, 이때 ‘강력한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함을 시사했다. 이런 식으로, 푸틴의 강건한 육체는 그가 러시아를 강력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 적임자임을 부각하여 전달하는 정치적 메시지 발신지나 다름없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푸틴의 몸은 이른바 ‘프로파간다 육체’가 되어 그의 정치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개인적 이미지 향상과 정치적 목표 실행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런 ‘프로파간다 육체’를 통한 푸틴의 긍정적 이미지 연출 전략은 그가 2018년 3월 대선을 의식하고 1월 19일 보여준 러시아 정교회 세례 목욕식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사실, 이전까지 푸틴은 러시아 정교회 성탄절을 맞아 지방의 작은 교회를 방문하여 평신도들과 함께 소박하게 예배드리면서 자신의 종교적 이미지 연출을 통해 대중적 지지를 확보·유지했을 뿐, 세례 목욕 행사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2018년 대선을 앞두고 푸틴이 상의를 벗고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얼음 구멍에 들어가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근 모습은 정치적 지지 효과를 노린 다분히 의도된 연출로밖에 볼 수 없었다. 당시 푸틴이 상의 탈의로 노출한 육체적



2018년 1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3월 대선을 앞두고 얼음 구멍에 들어가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다.
ⓒ 러시아 대통령실

이미지는 그의 몸이 탄탄한 근육질과 건강한 남성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대중에게 확인시켜 줬다.

육체 이미지 변화

흥미롭게도, 푸틴의 남성적 카리스마를 물씬 풍겼던 상반신 노출 상태의 '프로파간다 육체'는 2018년 대선 직전 시점을 끝으로 더는 가동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 직후부터 현재까지 푸틴은 상의 탈의한 맨몸을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마치 자기 몸을 똘똘 감싸 숨기려는 듯이 잘 차려입은 모습을 보여주곤 했다. 이는 그가 2018년 여름휴가 때 시베리아에서 찍은 사진만 봐도 분명하게 확인되는데, 당시 푸틴은 1년 전 모습과는 정반대로 완전 복장에 긴 지팡이를 들고 시베리아 산악을 누볐다. 이 모습을 담은 당시 사진들을 보면, 푸틴은 강력한 육체적 카리스마를 통해 남성성을 발산하는 '진정한 사나이'가 더는 아니었다. 푸틴의 이런 모습은 이미 육체적 이미지보다는 정신적 이미지로 대중의 호감을 사려는 카리스마 연출 전략으로 선회했음을 시사했다. 당시 그가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가장자리에 앉아 먼 곳을 지긋이 굽어보는 모습은 정신적 구도자나 선지자 같은 느낌을 풍겼다. 이런 이미지 연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푸틴의 육체적 카리스마가 더는 옷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데서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20년 푸틴의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노란색 방호복으로 철저하게 감싸인 장면은 그의 '프로파간다 육체'가 완전히 멈춰버렸음을 의미했다.

그로부터 2년 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함께 푸틴이 여름휴가나 가을 생일 때 멀리 시베리아에 가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던 연례행사도 이제는 완전히 막을 내린 듯이 보인다. 이에 따라 푸틴이 그나마 산행에서 보여주기 시작했던 구도자의 시각 이미지 연출도 더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푸틴은 전시 지도자의 이미지를 종종 보여주곤 했는데, 이는 그가 러시아군



2020년 3월 24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방호복을 입고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 러시아 대통령실

> “푸틴이 전시 지도자의 시각적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러시아군 장병들과 똑같은 위장복을 차려입었음에도 과거와 같은 군사화된 강력한 남성성의 육체적 카리스마는 별로 없어”

위장복으로 차려입고 장병들과 나란히 서서 신년 인사를 전하던 모습이나 러시아군 진지를 방문하여 작전본부에서 지휘관의 보고를 받고 장병을 격려하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푸틴은 전시 지도자의 시각적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러시아군 장병들과 똑같은 위장복을 차려입었음에도 과거와 같은 군사화된 강력한 남성성의 육체적 카리스마가 돋보이지 않았다.

현명한 원로

이런 가운데 최근 푸틴은 ‘액션맨’ 행보를 오랜만에 다시 선보였고 이 과정에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는 이미지도 연출해 주목할 만했다. 지난 5월 11일 푸틴은 자신의 학생 시절 독일어 교사였던 베라 구레비치가 묵고 있던 모스크바 호텔로 찾아가서 커다란 꽃다발을 직접 안겨주며 은사와 제자의 훈훈한 상봉 장면을 연출했다. 이 과정에서 푸틴의 지시로 개발된 러시아산 최고급 리무진을 그가 직접 운전하고 호텔로 향한 장면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소개됐다. 또 호텔에서 푸틴이 지방에서 올라온 러시아 일반 시민들과 허물없이 대화하고 어울린 화기애애한 얘기도 전해졌다. 이 모든 이야기는 지난 25년여간 푸틴이 자신의 이미지 향상과 정치적 지지를 끌어내고자 할 때마다 꺼내 들어 톡톡한 재미를 보곤 했던 익숙한 레퍼토리의 재연이었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 연출은 과거처럼 대중의 관심을 일시적으로 끌 수는 있었지만, 그에게 불리한 주변 상황을 유리하게 되돌리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게다가 지금 러시아 국민은 대통령의 자기 이미지 연출보다는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서 모든 게 다시 정상화될 수 있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푸틴은 ‘액션맨’ 행보도 좋지만, 그보다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혜안과 통찰을 보이는 현명한 정치 지도자의 믿음직한 면모를 보여주는 게 이제는 더 나을 것이다. 예를 들면, 그는 현명한 원로 정치인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할 수도 있고,[5] 이를 통해 이전 못지않은 대중적 지지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이 푸틴 앞에 놓인 새로운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으리라.

---

1 “Speech and the Following Discussion at the Munich Conference on Security Policy.”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4034

2 “How Putin Became Master of the Image.” https://www.bbc.com/news/articles/cddpl33v247o

3 “Стань таким, как Путин! Пособие для чиновников по физподготовке.” https://www.kp.ru/daily/23954/71877/

4 Andrew Foxall. “Photographing Vladimir Putin: Masculinity, Nationalism and Visuality in Russian Political Culture.” *Geopolitics*, No. 18 (2013). pp. 144.

5 Andrey Pertsev. “Putin's Outdated Image Lays Bare Russia’s Flawed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https://carnegieendowment.org/russia-eurasia/politika/2025/07/russia-putin-public-image

2026년 러시아 에너지 산업 동향과 전망

연담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러시아 에너지 산업: 회복 중인가, 약화 중인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에너지 산업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예상보다 견실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가스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원유 가격상한제, 금융 제재, 해상운송 규제, 첨단기술 수출 통제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 비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그림자 선단과 제3국 중개무역을 활용하여 상당한 수준의 에너지 수출을 유지해 왔다.

이런 현상만 놓고 본다면 러시아 에너지 산업은 제재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2026년 들어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국제유가를 자극하면서 러시아의 석유 수출 수익은 단기간에 대폭 증가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6년 3월 러시아의 원유·석유제품 수출 수익은 약 190억 달러에 달해 전월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1]

그렇다면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은 회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글에서는 2026년을 기점으로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에너지 산업을 전망한 후에 한·러 간 에너지 협력 가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 “러시아 에너지 상황은 수익성은 회복됐지만,
> 안정성은 낮아진 상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에너지 상황: ‘수익 회복’과 ‘인프라 손상’의 병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수익 회복과 산업 기반 손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겉으로 보면 러시아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대한 에너지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수익은 생산 능력 회복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의 결과가 아니라, 국제유가 상승, 러시아산 원유 할인 폭 축소, 중동 리스크에 따른 가격 특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즉, 러시아 에너지 산업은 많이 팔아서 회복한 것이 아니라 비싸게 팔아서 버티고 있는 것에 가깝다.

2026년 3월 러시아의 원유·석유제품 수출은 전월 대비 32만 배럴 증가해 하루 710만 배럴 수준에 도달했다. 같은 달 석유 수출 수익은 2월 97억 5천만 달러에서 190억 달러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2] 그러나 이 수치는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실질적 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출량은 약 4.7% 증가했지만, 수익이 약 95%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수익 증가의 핵심 원인이 물량 확대가 아니라 국제유가 상승과 러시아산 원유 할인 폭 축소였음을 보여준다. [표 1]에 따르면 3월 수익 증가분 중 약 85~90% 이상은 가격효과였고, 물량 증가 효과는 10% 안팎에 불과했다.

[표 1] 3월 러시아 석유 수익 증가 요인

요인	대략적 월간 효과
가격 특수 (유가 상승 + 할인 폭 축소)	약 78억 달러
물량 특수	약 5억~8.5억 달러
총수익 증가	약 92.5억 달러

이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은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핵심 변수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 시설, 수출 항만, 파이프라인, 저장 시설, 해상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2026년 3월 말부터 발트해의 프리모르스크, 우스트루가, 흑해의 노보로시스크 등 핵심 항만이 공격받았다. 키이우경제대학교(KSE Institute)는 2026년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2주 동안 러시아가 약 17억 6천만 달러의 석유 수출 수익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한다.[3]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단순한 군사적 교란이 아니라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능력과 재정수입 기반을 직접 겨냥하는 경제전의 성격을 띤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공격 대상이 단순 저장 시설을 넘어 정유 핵심 설비와 상류 부문(Up-



지난 3월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은 우스트루가 항만의 정유 시설 ⓒ 위키피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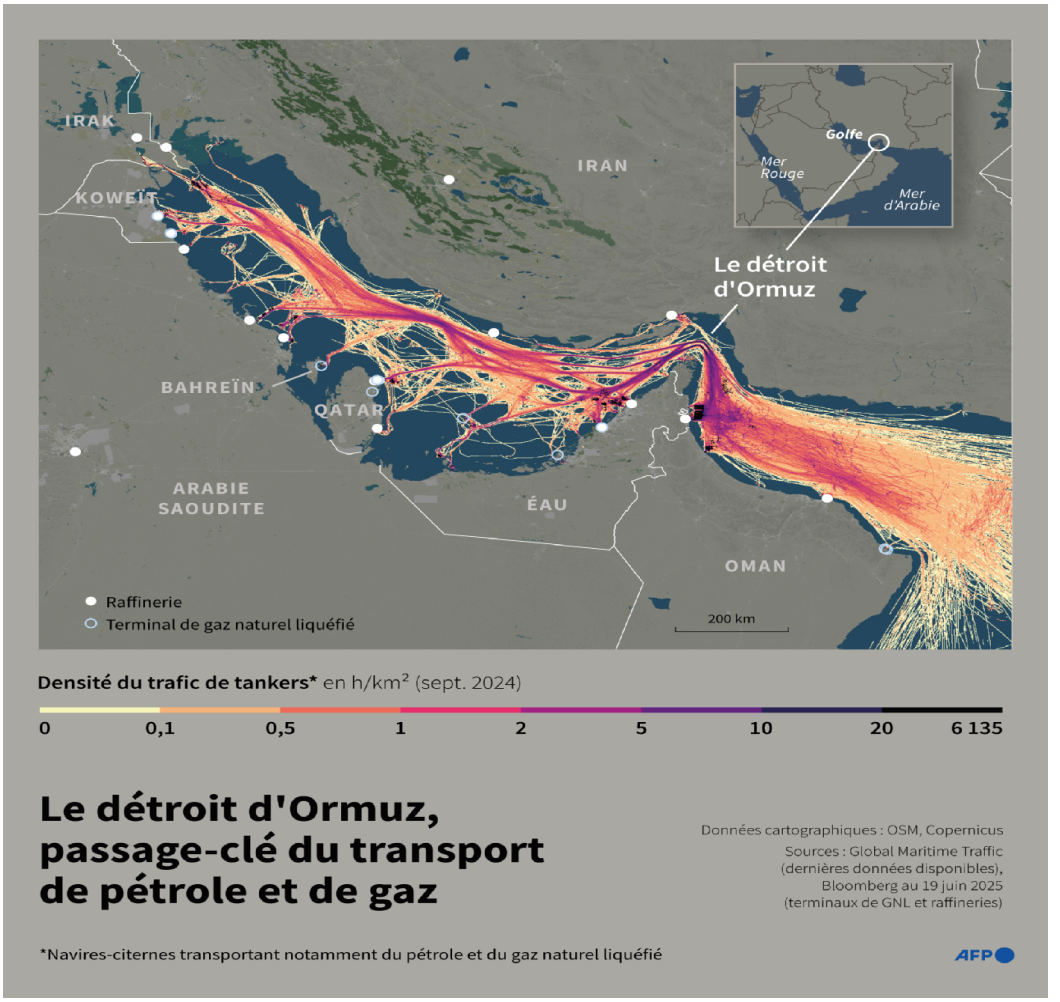
stream) 생산 시설(E&P)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유 시설이 손상되면 러시아는 원유를 휘발유, 디젤, 나프타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잃는다. 이 경우 러시아는 원유 수출을 늘려 단기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석유제품 수출 감소, 국내 연료 부족, 정유 마진 하락이라는 삼중 압박에 직면한다. 실제로 러시아 정부가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은 국내 수급 불안이 이미 정책 대응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 결국, 러시아는 에너지 수익을 회복했지만, 그 수익을 만들어 내는 산업 기반은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점진적으로 손상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핵심 역설이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리스크: 러시아에 기회인가, 일시적 착시인가?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분명한 단기 호재로 작용했다. 중동의 공급 차질은 국제유가를 끌어올렸고, 러시아산 원유의 할인 폭을 축소했으며,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석유 수출 수익을 급격히 개선했다. 하지만 이 현상을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회복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러시아가 더 많이 생산해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국제 공급 불안으로 같은 물량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다는 점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크다. 2024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콘덴세이트와 LNG의 80% 이상이 아시아 시장으로 향했으며, 중국·인도·일본·한국이 주요 수입국이었다. 따라서 호르무즈 차질은 단순한 중동 지역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에너지 안보 문제이며, 국제유가와 LNG 가격을 동시에 흔드는 구조적 충격이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세 가지 방식으로 반사이익을 얻는다. 첫째, 국제유가 상승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 탱커 선박들의 통과 밀도를 보여주는 지도 © Revue Conflits(2025.6.23)[4]

우랄산 원유 가격이 개선된다. 둘째, 중동산 원유 공급 불안으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아시아 정유사들의 수요가 유지된다. 셋째, 글로벌 LNG 시장 경색은 러시아 LNG와 파이프라인 가스 수익을 보완한다. 실제로 에너지·청정공기연구센터(CREA)는 2026년 4월 러시아 화석연료 수출 수익이 전월 대비 4% 증가해 하루 7억 3,400만 유로 수준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수출 물량은 7% 감소했다고 분석했다.[5] 이는 러시아가 '더 많이 판 것'이 아니라 '덜 팔고도 더 비싸게 받은 것'에 가깝다.

따라서 호르무즈 리스크가 러시아에 주는 효과는 역설적이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러시아의 단기 재정수입은 개선된다. 로이터통신 분석에 따르면 2026년 5월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입이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5월

> "호르무즈 위협 리스크는
> 아시아 에너지 안보 구조를 흔드는 충격적 사건"

누적 기준으로는 석유·가스 수입이 전년 대비 약 3분의 1 감소한 것으로 제시된다.[6] 즉 러시아는 전쟁 프리미엄 덕분에 숨통을 틔웠지만, 연간 흐름 전체가 회복세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재와 우회 수출: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생존 비용'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에너지 산업을 평가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오해는 '제재가 실패했다'라는 주장이다. 러시아가 여전히 원유와 석유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중국·인도·튀르키예 등 비서방 시장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제재의 효과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해석한 것이다. 제재의 핵심 효과는 러시아 에너지 수출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에너지를 팔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거래, 운송, 금융, 보험, 할인, 외교 등의 비용을 구조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여전히 에너지를 팔고 있지만, 전쟁 이전보다 훨씬 더 비싸고 불안정하며 위험한 방식으로 팔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서방 제재가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업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로스네프트(Rosneft)와 루코일(Lukoil)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미 제재 대상인 가스프롬 네프트(Gazprom Neft)와 수르구트네프트가스(Surgutneftegas)까지 포함하면 러시아 석유 생산의 상당 부분이 미국 제재망 안에 들어가게 됐다. 그 결과 2026년 초 러시아 우랄산 원유의 할인 폭은 확대됐고, 러시아 수출 기업은 구매자 확보와 결제 안정성에서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유럽연합(EU)의 제재 역시 더 정교해졌다. 초기 제재가 원유 수입 금지와 가격상한제에 집중했다면, 최근 제재는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주변 인프라와 서비스망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EU의 제20차 제재 패키지는 LNG 선박·쇄빙선 정비, LNG 터미널 서비스, 그림자 선단, 전략 항만 거래, 선박 매매 실사 의무, 러시아 은행 및 암호 자산 거래 등을 포괄한다. 이는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단순 물량을 줄이는 조치라기보다는 러시아가 에너지를 국제시장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해운·금융·보험·정비·항만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약화하는 조치이다.

또 하나의 핵심은 제재가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장기 투자 능력을 약화한다는 점이다. 석유·가스 산업은 단순히 현재의 생산 설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탐사, 시추, 해상 플랫폼, LNG 액화 설비, 쇄빙 LNG선, 정유 설비, 디지털 유지보수, 고압 장비 등 고도의 기술·자본·서비스가 필요하다. 서방 제재는 이 부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러시아의 단기 수출보다는 중장기 생산성과 기술 갱신 능력을 약화한다. Arctic LNG 2와 같은 프로젝트가 쇄빙 선박 조달과 기술 제약에 직면한 것은 이 문제를 잘 보여준다.

결국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현재 상황은 역설적이다. 러시아는 제재를 우회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뒀지만, 바로 그 우회 방식 때문에 산업의 비용 구조가 악화하고 있다. 따라서 제재의 본질은 러시아 에너지 산업을 즉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에너지 대국으로 기능

> "러시아의 제재 우회 방식으로 인해 산업 '생존 비용' 구조 악화"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 ⓒ Aneta Paunoska(2023.3.23)[7]

하는 비용을 지속해서 높이는 것이다. 러시아는 여전히 팔 수 있다. 하지만 더 싸게 팔아야 하고 더 멀리 팔아야 하며 더 위험하게 팔아야 한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에너지 산업이 직면한 가장 냉정한 현실이다.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세 가지 시나리오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전망은 단일한 방향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러시아는 여전히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자이며, 고유가 국면에서는 막대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공격, 미국과 EU의 제재, 그림자 선단 비용, 아시아 시장 의존, 정유 능력 손상이라는 구조적 제약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회복 또는 붕괴의 문제가 아니라, 고유가가 구조적 취약성을 얼마나 오래 가릴 수 있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

1. 시나리오 A: 고유가 지속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다. 이 경우 러시아는 생산량과 수출량을 크게 늘리지 못하더라도 높은 가격을 통해 석유 수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2026년 3월 러시아 석유 수출 수익은 약 190억 달러로 급증했고, 4월에도 약 191억 8천만 달러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는 물량 확대가 아니라 가격효과에 의해 만들어진 수익이었다.

이 시나리오에서 러시아는 단기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선다. 고유가는 연방 예산을 보완하고 전시 경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아시아 정유사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하도록 만든다. 로이터통신 보도는 2026년 5월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입이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2026년 1~5월 누적 석유·가스 수입이 전년 대비 약 3분의 1 감소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8] 이는 고유가가 단기 완충장치는 될 수 있지만, 연간 수입 기반을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2. 시나리오 B: 인프라 공격 확대와 제재 강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가 정유 시설, 항만, 파이프라인, 상류 부문 생산 시설(E&P)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동시에 미국과 EU가 러시아 에너지 수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경우다. 이 경우 국제유가가 높더라도 러시아는 그 가격 효과를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하지 못한다.

이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2026년 4월 러시아 원유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46만 b/d 감소해 약 880만 b/d에 그쳤으며,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이 러시아의 생산과 수출 능력에 부담을 주고 있다. 2026년 4월 러시아 화석연료 수출 수익은 전월 대비 4% 증가했지만, 수출 물량은 7% 감소했고, 해상 원유 수출 물량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의 영향으로 24% 감소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병목이 단순한 제재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유 시설이 손상되면 러시아는 고부가가치 석유제품 수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항만이 타격을 받으면 원유 수출이 지연된다. 파이프라인과 해상 플랫폼이 공격받으면 생산 자체가 흔들린다. 여기에 로스네프트·루코일과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 LNG 서비스 제한이 결합하면 러시아는 에너지를 팔 수는 있어도 더 비싸고 더 느리고 더 위험한 방식으로 팔아야 한다.

3. 시나리오 C: 유가 하락

세 번째 시나리오는 중동 위기가 완화되거나 세계 경기 둔화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경우다. 이 경우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러시아 정부도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2026년 예산 산정에서 우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59달러, 2027~29년에는 50달러 수준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정부 스스로가 현재의 고유가가 영구적 조건이 아니라 일시적 지정학적 충격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가 하락 시 러시아가 직면할 문제는 단순한 수익 감소가 아니다. 첫째, 제재로 인한 할인폭이 다시 커질 수 있다. 둘째, 그림자 선단과 우회 수출망의 고정비용은 그대로 남는다. 셋째, 정유 시설 복구와 항만 방호 비용은 계속 발생한다. 넷째, 아시아 구매자들은 제재 리스크를 이유로 추가 할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러시아는 같은 배럴을 팔아도 전쟁 이전보다 훨씬 더 낮은 순수익을 얻게 된다.

한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 과거의 상호 보완성에서 현재의 전략적 제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까지 한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은 비교적 명확한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국가였고, 러시아는 극동·시베리아·북극 지역의 석유·가스·LNG·석탄을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하려는 공급국이었다. 한국에 러시아는 중동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체 공급원이었다. 러시아에 한국은 안정적 수요, 정유·조선·LNG 운반선 기술, 북극항로 협력 가능성을 가진 고부가가치 파트너였다. 특히 사할린 LNG, 러시아산 원유·나프타·석탄, 북극 LNG 운반선 건조, 북극항로 물류 협력은 한·러 에너지 협력의 핵심축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 구조는 근본적으로 흔들렸다. 현재 한·러 에너지 협력은 경제적 상호 보완성만으로 작동할 수 없다. 제재 준수, 한·미 동맹, 금융결제 리스크, 해상보험 리스크, 평판 리스크,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 심화라는 전략적 변수가 에너지 협력의 공간을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 러시아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에서 중동 리스크 증가”

강하게 제약하고 있다. 다시 말해 러시아산 에너지가 가격 면에서 매력적일 수는 있지만, 한국 기업과 정부가 이를 확대하는 데 따르는 정치·외교·안보 비용은 전쟁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 구조가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활용이 제약되면서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는 다시 높아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2021년 59.8%에서 2023년 71.9%로 상승했고, 최근에도 약 70% 수준에 머물렀다.[9] 이는 러시아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에서 중동 리스크가 다시 커졌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이 문제를 더욱 첨예하게 만든다. 호르무즈 불안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에너지 안보 충격으로 작용한다. 2026년 5월에도 중동산 원유를 실은 한국 유조선이 호르무즈를 통과해 울산으로 향한 사례가 보도될 정도로 한국의 공급망은 여전히 이 해협에 깊이 묶여 있다.

그렇다면 호르무즈 위기 속에서 한국이 러시아 원유의 ‘덕’을 볼 수 있는가. 제한적으로는 그렇다. 국제시장 전체에서 러시아산 원유가 일정 물량을 공급하면 중동 공급 차질에 따른 가격 급등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제재 예외나 임시 면제를 허용한다면, 한국 정유사들이 러시아산 또는 러시아산과 연계된 원유·나프타를 검토할 여지도 생긴다. 실제로 2026년 3월 한국이 워싱턴과의 협의를 통해 러시아·이란산 원유 거래의 제재 리스크를 일부 해제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한·러 에너지 협력의 복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첫째, 러시아산 원유 거래는 미국의 제재 운용에 크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러시아산 원유는 할인 가격이 매력적일 수 있지만, 결제·보험·운송·평판 리스크가 붙는다. 셋째, 한국은 러·북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러 에너지 거래 확대가 안보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LNG 부문도 마찬가지다. 러시아 LNG는 한국의 공급 다변화 차원에서 과거에는 의미 있는 선택지였다. 하지만 EU의 에너지 전환 전략(REPowerEU)과 대러 제재 강화는 러시아 LNG의 장기 시장 접근성을 약화하고 있다. EU는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이후 러시아 LNG 관련 서비스·터미널·운송 부문 압박도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현실적 선택지는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전면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시 국제시장 안정 효과를 활용하되 직접 협력은 매우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러시아산 원유·LNG를 전략적 협력 자산 차원과 비상시 시장 완충 변수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안보와 제재 준수, 한·미 동맹, 대북 억제, 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에너지 인프라 방어와 제재 내구성 확보, 아시아 시장 확보에 달려 있어”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미래: ‘가격’보다는 ‘인프라·제재·시장 접근성’이 좌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에너지 산업은 붕괴하지 않았다. 오히려 2026년 3~4월처럼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리스크가 국제유가를 끌어올린다면 러시아는 여전히 막대한 석유 수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회복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 현재 러시아의 수익 회복은 생산 능력 확대나 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국제유가 상승과 러시아산 원유 할인 폭 축소라는 외부 가격 조건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세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첫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얼마나 방어하고 복구할 수 있는가. 둘째, 미국과 EU의 제재 환경 속에서 운송·보험·결제·기술 접근성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 셋째, 유럽 시장 상실 이후 아시아 시장에서 충분한 가격과 안정적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 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고유가는 러시아에 일시적 숨통을 틔워줄 수는 있어도 산업의 구조적 약화를 막지는 못한다.

따라서 최종 평가는 명확하다. 러시아 에너지 산업은 아직 강하다. 하지만 전쟁 이전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고 비용도 더 높으며, 외부 충격에 취약한 산업으로 변했다. 고유가가 러시아를 살릴 수는 있지만, 러시아 에너지 산업을 건강하게 만들 수는 없다. 앞으로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성패는 국제유가가 아니라 인프라의 생존력, 제재 회피의 비용, 그리고 시장 접근성의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다. RIO

---

1 IEA. Oil Market Report. April 2026. https://www.iea.org/reports/oil-market-report-april-2026

2 IEA. 위의 자료.

3 KSE Institute. “Impact of Ukrainian Strikes on Russia’s Oil Infrastructure.” 2026.4. https://kse.ua/about-the-school/news/impact-of-ukrainian-strikes-on-russia-s-oil-infrastructure-kse-institute-assessment/

4 Revue Conflits. “Détroit d’Ormuz : une zone de passage essentielle,” June 23, 2025. https://www.revueconflits.com/detroit-dormuz-une-zone-de-passage-essentielle

5 CREA. “April 2026 — Monthly analysis of Russian fossil fuel exports and sanctions.” 2026.5.13, https://energyandcleanair.org/april-2026-monthly-analysis-of-russian-fossil-fuel-exports-and-sanctions/

6 Reuters. “Russia’s oil and gas revenue seen up 39% y/y in May thanks to Iran war.” May 20, 2026.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russias-oil-gas-revenue-seen-up-39-yy-may-thanks-iran-war-2026-05-20

7 Aneta Paunoska. “Rising shadow fleet of oil tankers increases the risks of oil spills on seas,” *Renewables*, March 23, 2023. https://www.renewable.news/sustainability/rising-shadow-fleet-of-oil-tankers-increases-the-risks-of-oil-spills-on-seas

8 Reuters (May 20, 2026). 위의 자료.

9 Jung Suk-yee. “Korea’s Middle East Oil Dependence Hits 70%, Urging Import Diversification.” April 2, 2026. https://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760

캄킨 서점
냉전 시대 미국 속 러시아 문화

글 _ 옐레나 마출스카야 러시아 역사가
번역 _ 이태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20세기 냉전 시기 미국에서 러시아어 도서를 구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러시아 망명자들은 물론 러시아를 연구하던 학자들까지 늘 자료 부족에 시달렸다. 특히 냉전 체제 속에서 소련 자료 접근이 제한돼 있었던 만큼 러시아어 서적과 잡지는 값비싼 희귀품에 가까웠다. 바로 이때 워싱턴의 한 러시아 서점이 학자들과 독자들의 숨통을 틔워 줬다. 빅토르 캄킨 서점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러시아어 도서와 잡지, 신문을 공급하며 미국 속 러시아 문화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에서 러시아를 연구하던 학자뿐 아니라 한국에서 러시아를 공부하던 연구자들에게도 이곳은 매우 유용한 곳이었다. 냉전 시기에 한국에서 러시아어 자료를 직접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거대한 러시아 서점의 시작은 러시아 혁명과 내전이 낳은 한 소년의 삶과 맞닿아 있다. 빅토르 캄킨은 1902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1974년 워싱턴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워싱턴 사이에는 그의 운명을 바꿔 놓은 시베리아 도시 옴스크가 있었다. 1917년 혁명 이후 옴스크로 이주한 캄킨은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처음 책의 세계에 매료됐다. 동시에 러시아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백군(白軍) 운동에 뛰어들었고, 가족의 죽음과 망명이라는 비극도 겪었다.

이후 캄킨은 하얼빈과 상하이, 톈진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갔다. 1952년 워싱턴으로 이주한 캄킨 부부는 이듬해 곧바로 워싱턴 최초의 러시아 서적 전문점을 열었다. 냉전 한복판에서 이 서점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러시아 망명자와 소련인, 학자와 외교관이 함께 모이는 독특한 문화 공간으로 성장했다. 캄킨은 정치적 경계를 넘어 "러시아 책이라면 반드시 구해낸다"라는 신념으로 미국 최대 규모의 러시아 서적 유통망을 만들어 냈다.

흥미로운 점은 캄킨의 공간이 단지 망명 러시아인들만의 장소에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미국 사회에서 러시아 연구가 확대되면서 그의 서점은 러시아를 이해하려는 외국 학자들의 중요한 창구가 됐다. 그곳에는 혁명 이전 러시아를 그리워하는 망명자의 향수와 새로운 시대의 러시아를 이해하려는 학문적 열망이 동시에 공존했다. 캄킨 서점은 냉전이라는 장벽 속에서도 러시아 문화와 세계를 이어 주는 통로 역할을 했던 셈이다.

이번 호 「역사 프리즘」은 《루스키 미르》 2025년 2월호의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러시아 망명자 빅토르 캄킨의 삶과 그가 세운 미국 최대의 러시아 서점 이야기를 따라간다. 이를 통해 혁명과 내전, 망명이라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도 끝내 러시아 책과 문화를 지켜내려 했던 한 출판인의 삶을 함께 들여다본다. (편집자 註)

백군 소년에서 출판인으로

1902년 1월 26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빅토르라는 한 소년이 태어났다. 아버지 표트르 캄킨은 소액 대출 감독관으로 일했다. 업무 특성상 여섯 명의 자녀를 데리고 자주 이사해야 했다. 1917년 10월 혁명 이후 가족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 옴스크로 옮겨 갔다. 그곳에는 표트르 캄킨의 누나 올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옴스크 남자 고전중등학교의 통합 도서관을 맡고 있었다. 열여섯 살 빅토르가 도서관 사서로 일하게 된 것은 고모의 도움 덕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는 언젠가 책과 잡지를 펴내겠다는 꿈을 품게 됐다.

빅토르 캄킨의 삶을 연구하던 상트페테르부르크 문화대학의 표트르 바자노프 교수는 한 가지 궁금증을 품었다. 캄킨에게서 책을 빌려 간 사람 가운데 훗날 유명해진 인물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점이었다. "조사해 보니 아주 흥미로운 두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한 명은 훗날 옴스크·튜멘 주교 베네딕트가 된 바실리 플랴스킨이었고, 또 한 명은 북극과 발트해를 탐사한 수로학자 게오르기 리빈이었다. 두 사람 모두 사실상 빅토르 캄킨과 동년배였다." 당시 옴스크에는 반혁명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 도시의 많은 주민은 볼셰비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끝없는 사회·경제·정치적 실험은 민중의 삶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빅토르의 형 바실리는 반볼셰비키 지하조직과 협력하기 시작했다. 열여섯 살 빅토르도 방관하지 않았다. 그는 1918년 5월 26일 반볼셰비키 쿠데타에 참여했고, 이를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다.



빅토르 캄킨 ⓒ《루스키 미르》

"캄킨은 1918년 5월 26일 반볼셰비키 쿠데타에 참여했고, 이를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



1918~20년 무렵 노보니콜라옙스크의 시장 ⓒ《루스키 미르》

1918년 6월 캄킨 가족은 카잔으로 떠났다가 노보니콜라옙스크(오늘날 노보시비르스크)로 이주했다. 그러나 빅토르 캄킨은 홀로 옴스크로 돌아와 중등학교 부속 도서관에서 일했다. 당시 콜차크 정부는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열일곱 살 캄킨은 철도부로 발령받았지만, 그에게 정식 학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당국은 그를 부모가 있는 노보니콜라옙스크로 돌려보내 실업학교를 마치게 했다.

캄킨은 공부를 위해 다시 길을 떠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보가 날아들었다. 백군 강상 함대에서 복무하던 형이 이르티시강 전투에서 적군(赤軍)과 싸우다 전사한 것이다. 캄킨은 학업을 중단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형의 죽음에 복수하러 해군 훈련부대에 입대했다. 그런데 1919년 말 또 다른 비극이 닥쳤다. 적군이 노보니콜라옙스크를 점령한 뒤 아버지를 총살했다는 소식이었다.

기관총을 든 소년

빅토르 캄킨은 끝내 해군 교육을 마치지 못한 채 하얼빈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조직되던 백군 부대에 자원입대했다. 그는 부대와 함께 치타로 이동해 제2우파사단 제2포병대대에 배치됐다. 계급은 하급 포병 조준수였다. 그는 1920년 가을부터 백군이 연해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전투에 참여했다. 1921년 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표트르 글루드킨 대령의 제1소총여단

“캄킨은 하얼빈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조직되던 백군 부대에 자원입대해”



1920년대 하얼빈의 모습 ⓒ《루스키 미르》

소속으로 반볼셰비키 쿠데타 시도에 가담했다. 쿠데타가 실패한 뒤에도 캄킨은 극동 지역에 남은 콜차크 부대의 잔여 세력에 합류해 1921년부터 1922년까지 계속 전장을 떠돌았다.

세월이 흐른 뒤 빅토르 캄킨은 미국에서 이름난 러시아 서적상이 된다. 그 무렵엔 소련 대표단도 종종 그를 찾아왔다. 어느 날 한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자연스럽게 내전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소련 대표단 단장은 자신이 지휘하던 적군 장갑차가 시베리아의 작은 역 근처에서 백군 진지를 향해 진격하다 뜻밖의 저항에 막혔던 일을 떠올렸다. 기관총을 든 소년 하나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캄킨이 웃으며 답했다. "그 소년이 바로 나였다. 내 곁에는 타타르인 노인 한 명과 전령 한 명밖에 없었다. 그때 우리 쪽엔 사람이 더 없었다. 게다가 조준기도 망가져 있어서 장갑차를 제대로 맞힐 수도 없었다. 그냥 계속 사격하면서 저항하는 척만 했다."



연해주 임시정부 수반 미하일 디테리흐스 ⓒ《루스키 미르》

이런 이야기는 하나가 아니었다. 어느 날 워싱턴의 캄킨 집에는 소련 작가 대표단과 대외무역 대표단이 함께 모였다. 작가 대표단에는 보리스 폴레보이와 로베르트 로지데스트벤스키도 있었다. 캄킨은 '프롤레타리아 상인'이라 불리던 블라스 니치코프와 술잔을 기울였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참호에 있었지만, 둘 다 볼로차옙카 전투에 참여했다. 캄킨은 자신이 적군을 향해 포를 쏘던 순간을 떠올렸다. 마지막 포탄 한 발을 발사한 뒤 반격을 기다렸지만, 적군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블라스 니치코프가 웃으며 말을 받았다. "나도 거기 있었다. 우리는



쓰시마 해전에 참전했던 전함 '오룔' ⓒ《루스키 미르》

당신들한테 포가 엄청 많은 줄 알고 겁먹고 있었다…"

내전 시기 캄킨은 미하일 디테리흐스 휘하 동시베리아 포병부대에서 하급 포병으로 복무했다. 이후 시베리아 카자크 부대로 옮겼으며 이 대립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기를 내려놓지 않았다. 하지만 1922년 연해주의 백군은 완전히 패배했고, 캄킨은 하얼빈으로 향했다.



하얼빈 법과대학이 있던 철도회관 건물 ⓒ《루스키 미르》

그는 훗날 자서전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연해주 철수 과정에서 독립 예니세이 카자크 포병대 소속으로 방어전에 참여했다. 이후 백군 잔여 병력과 함께 중국·러시아·조선 국경 근처 훈춘에서 무장 해제됐다. 나는 소규모 부대와 함께 중국동부철도 노선까지 포를 운반했다. 하지만 볼셰비키에 넘겨질까 봐 두려워 열차에서 뛰어내렸고 걸어서 하얼빈까지 갔다.”

갈림길에 선 캄킨

캄킨은 학력도 없었고, 아버지는 총살당했고, 형은 전사했다. 어머니와 누이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캄킨은 우선 학업부터 마치기로 했다. 그는 로모노소프 중등학교 8학년에 편입해 1924년 졸업했다. 이후 하얼빈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이 학교는 1920년부터 1937년까지 하얼빈에서 운영된 러시아계 대학으로 중국동부철도 철도회관 건물에 자리하고 있었다. 젊은 캄킨은 학비를 벌려고 여름이면 일했다. 이후 중앙철도도서관에서 1년 동안 근무했는데 바로 이곳에서 도서관 일에 완전히 매료됐다.



옐레나와 빅토르 캄킨. 칭다오, 1948년
ⓒ《루스키 미르》

대학에서 5년을 공부한 끝에 캄킨은 졸업장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학위였다. 이미 사라진 러시아 제국의 법률 전문가였기 때문이다. 실업이 만연하던 하얼빈에서 그에게 남은 자리는 없었다. 결국 그는 상하이로 떠났다. 훗날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상하이에서 처음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다. 오늘은 넉넉했다가도 내일은 빈손이었다. 장티푸스에 걸려 죽을 고비도 넘겼다. 정말 많은 일을 겪었다…”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그는 1929년 자신의 첫 도서관을 세웠다. 러시아 망명자들도 힘을 보탰다. 함께 책장을 만들고 기적처럼 남아 있던 러시아 고전문학 서적을 가져왔다. 도서관은 곧 망명 러시아인들의 사랑방이 됐다.

빅토르 페트로프는 자신의 첫 책을 캄킨이 출판해 줬다고 회고하며 당시 모습을 이렇게 전했다. “차갑고 낯선 국제도시 상하이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준 사람이 바로 캄킨이었다. 그는 새로 도착한 학생들을 어떻게든 격려하고 보살피려 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상하이에서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또 ‘육체노동이라도 언제든 구할 수 있다’라고 했다. 실제로 그는 많은 학생에게 일자리를 찾아줬다. 학생들은 처음엔 야간 경비원이나 중국 장군 혹은 은행가의 경호원으로 일했다. 1930년대 초 상하이로 몰려든 수많은 하얼빈 출신 학생이 캄킨 덕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 “1930년대 초 상하이로 몰려든
> 수많은 하얼빈 출신 학생이 캄킨 덕에 자리를 잡아”

2년이 지나자, 캄킨은 사업 확장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만의 출판사와 자신이 만든 책을 파는 서점을 꿈꿨다. 그렇게 상하이에는 출판사 '말릭과 캄킨'이 문을 열었다. 캄킨은 3년 동안 동업자와 함께 일하며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할 만큼의 자본을 모았다. 그 결과 1936년 새로운 출판사 '캄킨과 포포프'가 탄생했다. 이번에는 캄킨이 주요 설립자였다. 같은 해 이 출판사는 자체 인쇄소에서 아르세니 네스멜로프의 『전쟁 이야기』를 펴냈다. 네스멜로프는 러시아계 중국 문단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시인이었다. 그의 산문과 시는 모두 캄킨을 깊이 매료시켰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출판사 '캄킨과 포포프'는 문을 닫았다. 이후 캄킨은 인쇄 신문 《슬로보》 출판부 책임자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1937년에는 톈진으로 이주해 서점 '즈나니예'의 운영을 맡게 됐다. 톈진에서 캄킨은 새로운 일뿐 아니라 배우자도 만났다. 지인의 소개로 스물네 살 옐레나 다비도바를 자신의 조수로 채용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 시베리아에서 만주로 이주해 치안판사로 일하고 있었다. 옐레나는 만주 여자 중등학교를 졸업한 뒤 하얼빈 치과 학교와 약사 과정을 마쳤고 중국 병원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캄킨이 몰두하던 책의 세계는 그녀를 의학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했다. 두 사람은 1938년 1월 결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캄킨은 정치 서적 출판사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 출판사는 주로 반공 성향의 책들을 펴냈고 서점 '즈나니예'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서점 이름은 '우리의 지식'이라는 뜻의 '나셰 즈나니예'로 바뀌었다. 운영은 여전히 캄킨이 맡았다. 그는 현지 러시아 망명 사회는 물론 유럽의 망명 인사들과도 관계를 넓혀 갔다. 하지만 1940년대 초 이 출판사 역시 활동을 멈추게 됐다.

1942년 10월부터 1946년 1월까지 캄킨은 톈진의 이탈리아·미국계 인쇄 출판사 '칠리 프레스'에서 부책임자로 일했다. 그리고 1946년 2월에는 미국 해군 제3군단 사령부에서 통역 겸 장교 보조 업무를 맡게 됐다. 당시 미국은 중국 내전에 개입해 톈진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었다. 톈진에서 미국 해군 제3군단은 《노스 차이나 마린》이라는 신문도 발행했다.

내전이 중국 중부와 북부 전역으로 번지자, 미국 의회는 자국 군대 철수를 결정했다. 캄킨은 자서전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해병대가 톈진에서 철수한 뒤 나는 칭다오로 거처를 옮겼고, 그곳에서 자체 인쇄소를 운영하며 《노스 차이나 마린》을 계속 인쇄했다." 정황상 캄킨은 미국 측 지원금을 바탕으로 인쇄소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49년 미국 함대가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인쇄소도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

1949년 2월 캄킨 부부는 군 수송선 '제너럴 앤더슨'을 타고 칭다오를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다. 미국에 도착한 뒤 한동안 테네시주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살았다. 하지만 캄킨이 평생 바치고 싶었던 일은 농사가 아니었다. 그는 기회가 생기자, 곧바로 서적 판매로 돌아갔다. 1952년 워싱턴으로 이주한 캄킨 부부는 이듬해 워싱턴 최초의 러시아 서점 '빅토르 캄킨 서점'을 열었다.

"캄킨은 현지 러시아 망명 사회는 물론
유럽의 망명 인사들과도 관계를 넓혀 가"



1950년대의 샌프란시스코 ⓒ《루스키 미르》

미국 속 러시아 문화의 오아시스

캄킨은 러시아 망명 사회를 이렇게 설명했다. "수도에는 약 2천 명의 러시아인이 살고 있다. 대부분 정부 기관 직원이나 언어학자, 번역가, 러시아어 교사다… 이곳 러시아인은 거의 모두 지식인이다." 말하자면 워싱턴의 러시아 망명자 상당수는 그의 서점 잠재 고객이었다. 그런데도 초창기 장사는 기대만큼 잘되지 않았다. 해결책을 찾아낸 건 아내 옐레나였다. 부활절을 앞두고 그녀는 서점에서 부활절 바구니와 빵을 팔아 보자고 제안했다. 손님들을 자연스럽게 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 전략은 제대로 통했다.



인쇄소 책임자 빅토르 캄킨과 인쇄공 산리쿠에 ⓒ《루스키 미르》

캄킨 부부는 함께 서점을 꾸려 나갔다. 옐레나는 계산대를 지키고 주문을 정리했으며 은행 업무도 맡았다. 캄킨은 고객들에게 책 목록과 제안서를 보내고 청구서를 동봉한 책 꾸러미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손님은 점점 늘어났다. 특히 외국인 고객이 많았다. 미국 사회에서 러시아 문화에 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에서 러시아 문화에 관한 관심이 점차 커져"



워싱턴 컬럼비아 로드 ⓒ《루스키 미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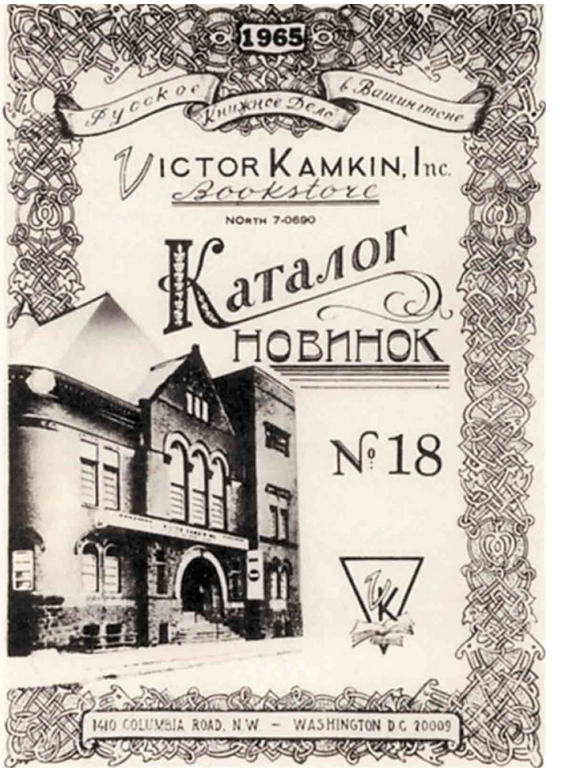
1957년 7월 캄킨 서점에 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소련 출판물 수출을 담당하던 기관 '메지두나로드나야 크니가'의 대표 유리 그라도프였다. 그라도프는 캄킨에게 소련 책도 함께 판매해 보자고 제안했다. 캄킨은 이를 받아들였다. 타국으로 떠밀려 온 러시아인들이 조국과의 연결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라도프는 결국 본국 상부를 설득해 캄킨 부부에게 더 넓은 매장으로 이전할 자금과 대형 서점을 꾸릴 비용까지 받아 냈다. 바로 이 순간 훗날 미국 최대의 러시아 서점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빅토르 캄킨'이 사실상 탄생했다.

그해 8월 캄킨 부부는 '메지두나로드나야 크니가'로부터 소련 서적 물량을 처음 받았다. 두 달 뒤에는 두 번째 물량도 도착했다. 이렇게 캄킨 회사는 미국에서 소련 서적을 유통하는 독점 업체로 자리 잡게 됐다. 같은 시기 서점에서는 신간 입고 목록을 담은 월간 카탈로그도 발행하기 시작했다. 또 소련에서 발행하는 신문과 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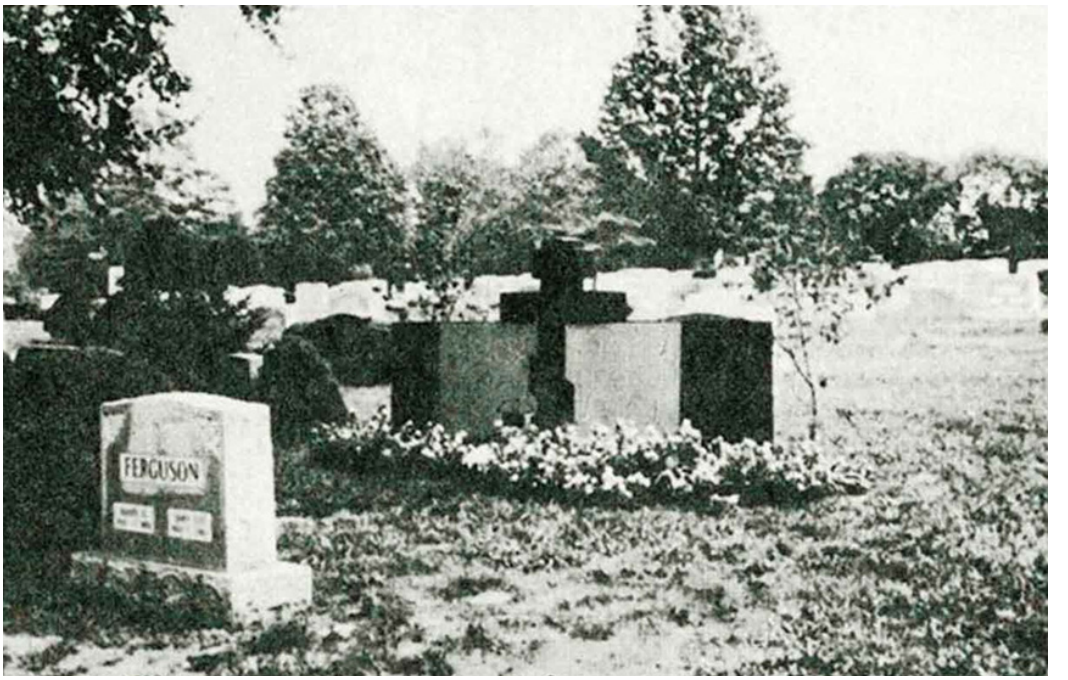
캄킨의 카탈로그는 단순한 신간 안내서가 아니었다.
ⓒ《루스키 미르》

구독 접수 부서도 새로 생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출판 사업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59년에는 서점 출판부의 첫 책이 세상에 나왔다. 근위 흉갑기병 연대 장교들의 회고록 『폐하의 흉갑기병들』이었다.



1965년 캄킨 서점 신간 카탈로그 ⓒ《루스키 미르》

출판사 '빅토르 캄킨'은 러시아 망명 문단 기준으로는 상당한 규모인 2천 부씩 책을 인쇄했다. 이반 부닌의 제자이자 작가였던 갈리나 쿠즈네초바의 『그라스 일기』도 출간했다. 1962년부터 1968년까지 캄킨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시인 니콜라이 구밀료프의 첫 전집을 펴냈다. 그는 특히 아메리카 대륙의 러시아인들에 관한 책을 꾸준히 출판했다. 『러시아 함대 미국 도착 100주년 기념 화보』와 러시아인의 아메리카 개척사를 다룬 빅토르 페트로프의 『포트 로스 사가』 등이 대표적이다. 또 《빅토르 캄킨 신간 카탈로그》 128호부터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망명 인사들의 사진과 짧은 소개문도 함께 실리기 시작했다. 학자와 교수, 교사, 작가, 화가, 예술가가 그 대상이었다.



캄킨의 묘 ⓒ《루스키 미르》

> “캄킨 서점과 출판사는 미국 속 작은 러시아이자 러시아 문화의 오아시스로 변해”

캄킨 서점과 출판사는 미국 속 작은 러시아이자 러시아 문화의 오아시스로 변해 갔다. 여러 세대의 러시아 망명자와 소련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비공식 만남의 장소가 된 것이다. 소련 외교관과 관광객, 무역 기관 직원도 캄킨 서점을 자주 찾았다. 이곳에는 소련에서는 구할 수 없는 책도 있었다. 또 러시아 역사 강연도 정기적으로 열렸다. 1964년에는 예일대학교 역사학자 니콜라이 울리야노프가 캄킨 서점에서 「북방의 탈마」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알렉산드르 1세를 다룬 이 강연은 1814년 러시아 군대의 파리 입성 150주년에 맞춰 열린 행사였다. 청중 속에는 실제로 파리를 점령했던 러시아군의 후손들도 있었다. 캄킨 출판사는 해마다 최소 열 종 이상의 책을 펴냈다. 또 캄킨 서점은 하루 평균 약 천 권의 책을 팔았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 사는 러시아어 화자 여섯 명 가운데 한 명은 캄킨 서점에서 책을 샀다고 한다.

1970년대 초 러시아 서적 출판·유통 회사 ‘빅토르 캄킨’은 소련 밖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러시아어 출판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워싱턴 창고에만 약 1,200만 권의 책을 보관하고 있었다. 회사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체스터,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하트퍼드, 필라델피아에도 지점을 두고 있었다. 여러 세대의 러시아 망명자는 이곳을 통해 소련 신문과 잡지를 구독했다.

캄킨 서점에는 예상치 못한 주문도 가끔 들어왔다. 어느 날 미국 우주비행사들이 알렉세이 레오노프의 그림이 실린 책을 구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다. 또 한 번은 혁명 이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뢰가 들어왔다. 한 노년 러시아 망명자가 혁명 전 자신이 살던



캄킨 서점 ⓒ《루스키 미르》

도시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옛 거리를 다시 떠올리고 싶었던 것이다. 캄킨 출판사는 어떤 주문이든 책임감 있게 처리했다. 캄킨의 신조는 단순했다. 고객이 원하는 러시아 책이라면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캄킨은 러시아 서적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열었다. 그의 목표는 "오늘날 러시아 사람들이 무엇을 읽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었다. 캄킨은 조국과의 연결을 죽을 때까지 끊지 않았다. 다른 망명자들과 달리 그는 소련 당국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어느 날 그는 소련 대사 부인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며 이런 쪽지를 함께 보냈다. "패배자들이 승자들에게." 꽃다발에는 러시아 삼색기 색깔의 리본이 달려 있었다.

반세기 역사의 끝

캄킨은 1974년 9월 18일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후에는 아내 옐레나가 사업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서점은 결국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소련 붕괴 이후 한때 금서였던 책들이 자유롭게 풀리면서 서점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다. 2002년 봄 워싱턴 언론은 빅토르 캄킨 러시아 서점이 결국 문을 닫았으며 약 200만 권의 책이 폐기 처분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책은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질 예정이었다. 그러자 러시아어를 모르는 미국인들까지 몰려와 헐값 판매 행사에 참여했다. 이 폐기 계획은 미국 연방 하원의원 콘스턴스 모렐라와 러시아 문학 애호가로 유명했던 미국 의회 도서관장 제임스 빌링턴의 개입으로 가까스로 중단됐다.

2006년 봄 언론은 캄킨 서점이 파산했다고 보도했다. 말년의 회사를 이끌던 캄킨의 조카 손자 이고리는 창고 임대료를 갚지 못했고 서점 강제 퇴거 절차가 시작했다. 다행히도 소유자들은 일부 희귀본과 소련 시대 명곡이 담긴 방대한 비닐 음반 컬렉션을 폐기에서 구해냈다. 이렇게 캄킨이 세운 미국 최대의 러시아 서점은 쓸쓸한 종말을 맞았다.



직원들과 함께한 캄킨 부부. 워싱턴, 1966~67년 ⓒ《루스키 미르》

마곡동 「바냐 삼촌」을 옹호한다

백승무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연극평론가

1896년 「갈매기」의 실패

1896년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 공연은 경쾌한 보드빌(통속희극) 전문 배우 엘리자베타 렙케예바의 근속 25주년 축하연으로 기획됐다. 결과는 처참했다. 그녀는 배역을 맡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사도 시시하고 인물도 건조했으며 엔딩도 쓸쓸했다. 그녀의 코믹한 연기를 기대했던 관객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평단의 험악한 비판 기사가 이어졌다. 체호프는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종적을 감추었고, 페테르부르크를 몰래 떠나 모스크바로 줄행랑을 쳤다. 이때부터 '초연 공포증'이 생겼다. 1898년 「갈매기」 재공연 첫날, 1899년 「바냐 삼촌」 공연 첫날에는 얄타로 '피신'했고, 「세 자매」 초연 때는 이탈리아로 갔으며, 「벚꽃 동산」 초연 때는 중간 휴식 시간에 잠깐 들렀을 뿐이다.

1896년 「갈매기」 실패는 체호프에게 큰 절망감을 안겼다. 드라마를 다시는 쓰지 않으리라 다짐할 정도였다. '모든 극작 원칙에 반하는 작품'을 쓰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그 혁신성을 알아주는 이는 드물었다. 「갈매기」의 탁월함을 거의 유일하게 선구적으로 인지한 이가 이듬해 '모스크바예술극장'을 창단한 블라디미르 네미로비치-단첸코였다. 그는 1897년 자신이 쓴 「삶의 가치」로 그리보예도프 희곡상 수상자에 지정됐으나 수상을 공개적으로 거부한다. 「갈매기」가 그 상을 받아 마땅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본인이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와 함께 〈갈매기〉를 직접 제작했고, 1898년 대성공을 거둔다.



대화 중인 아스트로프와 옐레나 ⓒ LG아트센터

전통에 대한 반기

그렇다면 1896년 「갈매기」 공연이 실패한 원인은 뭐였을까? 체호프가 모든 전통적 극작술을 폐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9세기 말은 이른바 웰-메이드 연극(Well-Made Play)의 시대였다. 정교한 극적 장치와 서사 구조로 무장한 웰-메이드 연극은 대중을 사로잡았다. 연극은 시대를 통찰하고 인간을 탐구하는 철학적 깊이 대신 긴장감과 극적 몰입을 추구하는 고급 유흥물이 됐다. 극 속에 치밀하게 내장된 장치들이 심리 게임처럼 서사의 흐름을 단숨에 뒤바꿔놓았고, 인물들은 폭주 기관차처럼 정면으로 충돌해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켰으며, 명료한 선악의 판명으로 이어진 결말은 후련함과 안도감을 선사했다. 이것이 바로 체호프가 폐기하고자 한 웰-메이드 연극의 특징이다.

그대로의 삶

체호프는 누구보다 삶을 사랑한 작가이다. 그는 삶을 작품 속에 담고자 했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랑스러운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자 했다. 그에게 웰-메이드 연극은 예술의 이름으로 삶에 분칠을 한 인공적 허상과 같았을 것이다. 삶에는 선악의

> “체호프는 누구보다 삶을 사랑한 작가로,
> 삶을 작품 속에 담고자 했고,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니라,
> 그 자체로 사랑스러운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자 했다”

경계가 그렇게 명백하게 그어지지 않는다. 사건들이 작위적으로 치밀하게 얽히고 꼬이는 경우도 드물고, 그것을 목격할 기회도 거의 없다. 웰-메이드 연극은 삶을 재료로 해서 관객들을 농락하고 현혹하는 기망인 것이다. 「바냐 삼촌」을 보자. 관객을 흥분시키는 격동의 서사도 없고, 갈등에 올라타 뜨겁게 달아오르는 인물도 없으며, 뒤통수를 때리는 뜻밖의 반전도 없다. 옐레나와 세레브랴코프의 불화는 결별로 치닫지 않고, 아스트로프와 옐레나의 연정은 불륜으로 이어지지 않고, 바냐와 세레브랴코프의 충돌은 살인으로 귀결되지 않으며, 소냐와 아스트로프의 관계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종결된다. 웰-메이드 연극이라면 하나같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소재들이다.

삶을 보라

체호프는 욕망이 충돌하는 갈등이나 치밀하게 짜인 서사 구조에 인물을, 인간을 던져놓길 원하지 않았다. 관객들이 복잡한 심리적 퍼즐게임에 넋을 놓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핵심은 인간이었다. 서사나 극적 장치, 기법이 아니라, 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중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말이나 행동보다는 마음 깊이에 숨겨진 심리와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정황들에 집중했다. 무대 위의 모든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체호프가 드러내고자 한 것은 물 밑에 숨겨진 거대한 빙산이었다. 자연스레 사건은 쪼그라들었고, 서사는 평탄화됐다. 「바냐 삼촌」의 줄거리는 한마디로 '세레브랴코프 부부가 왔다 갔다'로 수렴될 정도이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다. 행여나 관객들이 긴장감 넘치는 극적 행위에 몰입할까 봐 수시로 '휴지(休止)'를 끼워 넣었다. 흔히 의사소통 단절의 장치라고 해석하는 이 휴지는 극적 발화(發火)를 억누르는 찬물 기능을 맡는다.

차가운 객관성

인기스타 중심의 불균형도 제거하고 배역의 비중을 골고루 분배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인간은 서사물을 접할 때 누구의 관점으로 그 세계에 참여할지 먼저 고민한다. 서사물에 가상적으로 들어가 간접 체험을 획득하는 것은 호모 사피엔스의 생존율을 높이는 유용한 수단이었다. 남의 일을 나의 것처럼 시뮬레이션하여 필수 정보를 취득하고 감정적 스펙트럼을 확보해야만 유사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현생 인류는 그 특화된 능력을 유전자에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체호프는 이런 진화적 본성을 억제하고 참여 대신 관찰을 지시한다. 개입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라고 명한다. 작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자이고, 관객은 무대의 참여자가 아니라, 관찰자에 머물러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일각에 휘둘리지 않고 빙산의 본체를 조망할 수 있다. 체호프를 멘토로 여겼던 소설가 알렉산드르 쿠프린은 "체호프는 자기의 희로애락을 초월하여 놀랄 만큼 객관적 관점으로 만사를 바라봤다"라고 진술했다. 냉정한 관찰자만이 무대의 비극을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삶은 클로즈업으로 보면 비극이지만, 롱숏으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의 말이다. 롱숏의 차분한 거리감, 그것이 체호프가 의도했던 인물 배치 원리이다.

그러다 보니 체호프의 장막극에는 '원톱' 주인공 대신 복수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갈매기」는 갈매기를 상징하는 트레플레프와 니나가 주도하고, 「세 자매」는 말 그대로 세 자매, 「벚꽃 동산」은 아예 사람이 아니라 공간이 제목을 차지한다. 「바냐 삼촌」에서도 바냐가 홀로 앞에 선



분노하는 바냐와 소냐, 마리나 ⓒ LG아트센터

듯하지만, 삼촌을 호명하는 소냐가 그 곁에 있다. 그 외 인물들도 단역이 아니라 각자의 사연과 발언권을 가진 묵직한 비중을 자랑한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 집단 속에 위계와 관계가 엄존하는 듯하지만, 결국 각자의 삶이 있고 다들 자신의 관점으로 세계를 본다.

내면의 관찰

1896년 「갈매기」 공연을 맡았던 연출가 옙티히 카르포프와 알렉산드린스키 극장 배우들은 체호프의 희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배우들은 파트너의 대사에 반응하지 못했고, 연기의 스타일적 통일성도 없었다. 사건이 부산스레 전개되다 보면 대사는 정보 전달에 치우치기 마련이다. 하지만 체호프 드라마에는 대사를 잠식할 만큼의 사건은 없다. 자연히 대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게 된다. 초점은 인물 외부의 상황이나 사건이 아니라, 인물 자체, 인간 자체가 된다. '지금 저 인물의 감정은 어떤 것인가?' '인물의 저 행동이 관객에게 전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것이 체호프 드라마가 던지는 질문이다. 「바냐 삼촌」에 대해 체호프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모든 의미와 모든 드라마는 겉으로 드러난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다."

「바냐 삼촌」 공연을 관람한 톨스토이는 인물들의 내면을 읽어야 한다는 과제가 마뜩잖았다.

> "「바냐 삼촌」에 대해 체호프는 "인간의 모든 의미와 모든 드라마는 겉으로 드러난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다"라고 말해"

> “사건이 지워진 그 빈자리, 다의적인 인물 형상,
> 막연하게 느껴지는 서정적 정조와 분위기 등
> ‘모든 극작 원칙에 반하는’ 체호프 희곡은 마치
> 망치질을 기다리는 조각상 원석처럼 예술가들을 설레게 해”

그는 체호프의 희곡에 진정한 비극이 결여되어 있으며, 등장인물들이 능동적인 행동 없이 단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허공에서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단정했고, “극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네미로비치-단첸코조차 톨스토이의 지적을 인용하며 “드라마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반면, 막심 고리키는 이 희곡이 현대극의 전환점임을 간파했다. 공연 내내 눈물을 멈추지 않았던 그는 며칠 후 체호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경이로운 이 작품이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희곡 예술”임을 고백했다.

차마 도달하지 못한 체호프

한국 관객은 유독 체호프를 좋아한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연출가, 배우를 비롯한 창작자들이 체호프를 좋아한다. 사건이 지워진 그 빈자리, 다의적인 인물 형상, 막연하게 느껴지는 서정적 정조와 분위기 등 ‘모든 극작 원칙에 반하는’ 체호프 희곡은 마치 망치질을 기다리는 조각상 원석처럼 예술가들을 설레게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성공적인 체호프 공연을 꼽기란 쉽지 않다. 왜 그럴까? 그 수많은 체호프 공연은 어쩌다가 실패의 명렬(名列)에 갇히게 되었나? 스타니슬랍스키 같은 출중한 연출가를 만나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체호프 희곡에 필요한 정동의 연기나 앙상블 연기를 구현하기 어려운 한국의 창작 환경 때문일 수도 있다. 오랫동안 한솥밥 먹은 극단이 아니라면 체호프 희곡의 정서와 정동, 앙상블을 흉내 내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한국 공연들은 19세기 러시아 문학사에서 장구하게 이어져 온 권태와 나태의 테마를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했다. 1825년 데카브리스트 봉기 실패 이후 엘리트 지식인들이 침묵과 낙향을 통해 권력에 저항하고자 한 그 실존적 귀양살이의 정조를 담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지성을 무의미하게 시골에 방치함으로써 국가의 지적 자산을 훼손하려는 자학적 무위주의를 은밀히 지향했다. 한국인에게 지겨움과 게으름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 ‘타락’이다. 권태와 나태는 용서되지 않는다. 마치 이를 증명하듯 한국의 체호프 공연은 무대에서 권태와 나태를 지우려 했다. 심지어 배우들조차 부지런히, 부산스레 움직이고 뛰었다. 오후의 나른함이나 무료하고 따분한 ‘잔인한 시간’은 들어설 여지가 없었다.

낙오한 시대, 낙오한 인생

19세기 러시아 낙향 귀족과 유사한 경우로 안빈낙도와 유유자적을 내세웠던 우리네 사림파가 있다. 치국평천하의 유교적 이상을 포기하고 술과 유흥으로 음풍농월을 향유했던 사림의 자폐적 패배주의를 떠올려보라. 하지만 그들도 붓을 놓지는 않았다.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 사직 봉공의 뜻은 거두었지만, 은거 낙향의 정치적 명분과 도학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반추하고 연마



술에 취한 바냐와 아스트로프, 텔레긴 ⓒ LG아트센터

했다. 반면, 쇼펜하우어와 도스토옙스키를 꿈꾼 바냐는 학문을 포기하고 낙향 후 오직 농사일에만 전념한다. 허나 시대는 산업화로 인해 봉건귀족의 몰락이 개시되던 무렵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산성이 받쳐주질 못한다. 자학적 무위주의는 회생 불가한 노동 지옥으로 추락한다. 시골은 머물 수도, 떠날 수도 없는 공간이 된다. 학문과 농사일 간의 극단적 간격, 후진적 1차 산업과 최첨단 3차 산업 간의 좁힐 수 없는 거리, 정체된 시골과 앞서가는 도시의 괴리, 그 과도기적 혼란 속에서 등골 빠지는 바냐의 천신만고와 세레브랴코프 교수의 금융투자 구상이 충돌한다. 이 거대한 시대적 격돌은 살인으로도 부족할 세계사적 사건이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만)의 체호프

체호프 수용 앞에 가로놓인 이 높은 한국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모든 극작 원칙'을 거역하여 심장 죄는 긴장감도, 숨을 가쁘게 만드는 충돌도, 식은땀을 쥐어짜는 박진감도, 눈이 휘둥그레지는 반전도 없는 체호프 드라마의 슴슴함을 이길 수 있는 극약 처방은 조미료 첨가이다. 매콤상큼하고 새콤달콤한 자극적 맛을 가미하여 신선함을 획득하는 것이다. 체호프가 그토록 벗어나고자 했던 웰-메이드 연극의 자극성으로 복귀하자는 게 아니다. 체호프 희곡에 유밀을 입히는 과정이다. 어불성설인 것만은 아니다. 19세기 말 러시아 관객이 환호했던 슴슴함에 수준급 스코빌 지수(음식의 '맵기 수준')를 자랑하는 K-드라마의 화끈함을 코팅하더라도 체호프가 지워지는 건 아니다. 게다가 숏폼의 시대이다. 템포와 데시벨을 올려야 보이고 들린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橘化爲枳). 고답의 늪에 허우적대느니 한국인의 습식에 맞게 흡수 가능한 당의정으로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이 상책이다.

덜기±더하기

손상규 연출의 「바냐 삼촌」은 조미료와 향신료의 만찬이다. 일단 템포가 빠르다. 인물들은 일상적 화술에 가까운 속도로 발성한다. 전통적 무대 발성은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를 붙일 수 없다. 성능 좋은 마이크 음은 배우들의 유연한 화술에 날개를 달았다. 정확한 발성과 몇 데시벨 높은 마이크 음이 귀를 시원하게 만든다. 게다가 체호프 드라마의 레테르와 같은 '휴지'도 말끔히 제거했다. 어차피 우리에겐 맞지 않은 옷이었다. 연기를 해도 선이 굵어야 하고, 노래를 해도 폭발적이어야 하는 것이 우리 성정이다.

빠른 대사와 그에 따른 즉각적 감정 변화, 또 그에 따른 즉각적 행위 표출도 인물의 외곽선을 선명하게 그어주는 특효약이다. 말과 몸의 감각적 자극에 능통한 러시아 연극과는 달리, 정동적 연기력이 부족한 한국 무대에서는 체호프가 늘 어려웠다. 교향곡 악보처럼 정교하게 짜진 체호프의 희곡이 한국에서는 불협화음과 어긋난 톱니가 범벅된 낯선 외국어 같았다. 손상규 연출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각색을 통해 흐름을 저해하는 표현은 걸러낸다. 심리와 행위의 1차적 동기화에 집중하고 드러나지 않는 것, 드러낼 수 없는 것은 과감히 가지치기한다.

이와 더불어, 더할 것은 더한다. 모자란 것은 채우고, 흐린 것은 분명하게, 약한 것은 강하게 몰아친다. 그래서 인물들은 몸짓도 가볍고 움직임도 민첩하다. 나태와 권태의 역사적 멍에는 간데없다. 활기차고 역동적이다. 그만큼 감정의 기복도 크다. 대표적 장면이 교수와 옐레나의 부부싸움 장면! 두 사람은 소리치고 울부짖는다. 충돌은 날카롭고 갈등은 골이 깊다. 체호프가 누르고 숨기려 한 이른바 '물밑 텍스트'들이 분노와 짜증의 리듬을 타고 말과 몸으로 분토한다. 아침 드라마에서 그렇게 한다. 보이지 않는 '내면 연기'보다는 잘 보이는 과잉 연기가 더 낫다.



논쟁하는 세레브랴코프와 옐레나 ⓒ LG아트센터

> “고집스럽고 앙칼진 마리야의 표정과 걸음걸이,
> 밉상이면서도 철부지 같은 세레브랴코프의 엉거주춤 동작과 어투,
> ‘배우’ 손상규의 소울메이트처럼 말하고 움직이는 아스트로프,
> 영혼 위를 걷는 이들의 연기만으로도
> 이 공연은 제값을 해”

각색과 연기의 맛

가벼운 웃음을 일으키는 소극(笑劇)적 장면도 맛깔스럽다. 원작에 있는 유머나 아이러니는 번역극에서 재현하기 힘든 부분인데, 말장난과 소극적 장치로 웃음의 함량을 충당한 것도 칭찬할 만한 각색 요소이다. 어색하게 쥐어짜 낸 웃음이 아니라, 일상의 풍경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웃음이라 신선하고 재치 있다.

인물의 개성을 독창적으로 주조한 대목도 눈에 띈다. 고집스럽고 앙칼진 마리야의 표정과 걸음걸이는 바냐의 고립과 고독을 수식하기에 더없이 탁월한 배경막이 됐고, 밉상이면서도 철부지 같은 세레브랴코프의 엉거주춤 동작과 어투는 유례없는 독보적 형상을 축조했다. ‘배우’ 손상규의 소울메이트처럼 말하고 움직이는 아스트로프의 유연한 몸과 텅 빈 눈빛은 바냐의 빈틈을 채워주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고 자유자적하다. 영혼 위를 걷는 이들의 연기만으로도 이 공연은 제값을 한다. 특히 단출한 소품으로 무대를 넓게 사용했음에도, 배우들이 공간적 압박과



4막에서 바냐와 소냐 ⓒ LG아트센터

이완을 능수능란하게 조율하는 광경은 엄지를 세울 수밖에 없다. 움직임의 속도와 인물의 위치 역학이 빚어낸 성과이다.

'리듬감'이란 단어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연출의 음악적 감각/감성도 탁월하다. 마이크 음은 소리의 강약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데에는 젬병인바, 배우들의 유연한 화술은 기계음을 우회해서 신통방통한 성부와 박자를 생산한다. 동작과 동선의 리듬감, 장면과 장면의 정박과 엇박의 교차, 적시에, 적당하게, 적합하게 사용된 음악/음향 효과도 묘미이다.

바스러지는 삶

인간을 순식간에 파괴하는 단두대, 혹은 거대한 쥐덫을 연상시키는 쥐색의 구조물은 삶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에게 결박당한 인간군상의 조건을 도상화한다. 삶에 발을 내딛은 자는 누구도 그 잔혹함에서 헤어날 수 없다. 삶의 포로이자 노리개인 인간에 대한 연민은 체호프 장막극들이 공유한 주제이다. 인간의 키를 몇 배 웃도는 저 압도적 높이의 단두대를 옆에 세워놓고 우리는 살아간다. 대극장 체호프 공연은 클리셰처럼 '귀족 저택의 사실적 재현'을 답습하는데, 체호프 성지 모스크바예술극장조차도 이제는 그런 무대 안 쓴다. 하나 더, 평면 구조물의 위압감에 짓눌린 인물들을 살려내기 위해 섬세하게 배려된 조명 또한 기억하시라.

바냐와 소냐의 소진된 내면을 표현하는 마지막 무대는 하얀 덧마루 위에서 진행된다. 마치 마멸된 박제물이 전시대에 진열된 것처럼, 돛대 없이 풍파에 휘둘리는 뗏목처럼, 이들의 삶이 작은 '무대'에 오른다. 무대 위의 무대이고, 삶 위의 삶이다. 원작에서 이 장면은 절규도 아니고, 독려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고, 절망이나 희망은 더더욱 아니다. 딱 그 사이다. 이 공연에서 바냐와 소냐는 응당한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두 배우가 이전에 보여준 좋은 인상 덕에 밉지는 않다.

배우들의 연기 양식(Style)에 통일성이 없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동작이 제한적이고 어조의 진폭이 얕은 바냐의 연기술은 교정이 요구된다. 문장마다 의도와 감정이 변해야 하는데, 그 전환 지점이 밋밋하게 이어져서 심심하다. 상체를 전후좌우로 탄력적이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사방신전(四方伸展)과 제스처에 맞게 무게중심을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손상규는 옳다

손상규 연출은 인물 해석과 사건 진행, 무대 구성과 그 의미화에서 체호프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취향과 판단을 중시했다. 용감하되 영리했고, 과감하되 정교했고, 무모하되 세련됐다. 체호프에게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것은 좋은 시도이다. 그런 모험과 도전에서 공간이 열리고, 그곳에서 상상력이 크고 기백이 자라고 미감이 숙성된다. 그렇게 우리는 체호프를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체호프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손상규 연출은 인물 해석과 사건 진행,
무대 구성과 그 의미화에서 체호프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취향과 판단을 중시해"

붉은광장에 선 북한군
손님에서 전우로, 우호에서 동맹으로

김유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2026년 5월 9일 러시아 전승 기념일 열병식에서 북한군이 모스크바 붉은광장을 처음으로 행진함으로써 러·북 관계 변화의 상징적 장면으로 등장했다. 러시아에서 전승 기념일은 단순한 군사 행사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 역사 기억, 군사력, 외교적 우군을 함께 보여주는 핵심 의례다. 따라서 이 무대에 북한군이 등장했다는 것은 러·북 군사 협력이 러시아의 공식적 기념 의례 안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러시아 언론은 이를 쿠르스크주 전투와 연결해 보도하며 북한군을 러시아와 함께 싸운 전우로 묘사했다. 동시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방북, 북한군의 쿠르스크주 참전 기념 시설 개관, 장기 군사 협력 계획 논의는 러·북 관계가 일회성 협력을 넘어 제도화된 군사 협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북한은 러시아 언론에서 군사적 전우이자 반서방 질서 속의 우군, 그리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협력 파트너로 재구성되고 있다. 5월호 「미디어 트렌드」는 붉은광장에 선 북한군을 통해 러·북 관계가 우호에서 동맹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초청 손님에서 '행진 주체'가 된 북한

2026년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제81주년 전승 기념일 열병식에서 북한군의 등장은 러시아 언론이 특히 주목한 장면이었다. 러시아 주요 언론 매체들은 북한군이 이날 열병식

에서 붉은광장을 처음으로 행진했으며, 이들이 쿠르스크주 해방에 이바지했다고 보도했다.

이 장면의 의미는 단순히 외국군 부대가 러시아 열병식에 참여했다는 데 있지 않다. 핵심은 북한군이 러시아 전승 기념일 의례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1년 전인 2025년 전승 기념일 행사에서 북한군은 러시아가 예우하는 군사적 손님에 가까웠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열병식 이후 북한군 관계자들과 별도로 만나 대화한 사실이 보도됐고, 이는 쿠르스크주 전투에서 북한군의 역할을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인정한 장면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2025년 북한군은 쿠르스크 전선과 연결된 군사적 존재감을 드러냈을 뿐, 행진 대열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2025년의 장면은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공개적 인정이었지만, 북한군이 전승 기념일 의례의 중심부에 편입된 단계는 아니었다.

반면 2026년에는 북한군이 관람석이나 별도 의전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붉은광장의 행진 대열 안으로 들어왔다. 이는 북한군이 러시아 전승 기념일을 지켜만 보는 외부자가 더는 아니라, 러시아가 최대 국경일 의례 안에 포함한 행진 주체가 됐음을 보여준다. 특히 붉은광장은 러시아 국가 상징성이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북한군의 행진은 단순한 의전상의 변화보다 훨씬 더 큰 정치적 의미를 띤다.

러시아에서 전승 기념일 열병식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기억, 러시아 국가 정체성, 군사력, 외교적 우군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핵심 정치 무대이다. 그러므로 이 무대에서 북한군이 직접 행진했다는 것은 러시아가 북한을 자신의 국가 기억과 현재 안보 서사 안에 공개적으로 배치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리아 노보스티》는 전승 기념일 열병식 해설자의 설명을 인용해,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네오나치 침략자'로부터 쿠르스크주 해방에 크게 이바지했고, 집단적 영웅주의, 자기희생, 용기를 보여줬다고 보도했다.[1] 《인테르팍스》 역시 북한군이 쿠르스크주에 침입한 우크라이나 무장 조직으로부터 해당 지역의 해방에 참여했다고 전했다.[2]



2026년 5월 9일 전승 기념일 열병식에 참여한 북한군 ⓒ《리아 노보스티》

> “2025년에는 북한군을 관람석 첫 줄에 앉힘으로써 ‘존중’과 ‘감사’를 표현했다면, 2026년에는 북한군을 행진 대열에 포함함으로써 러시아군과 함께 보이는 존재로 만들어”

따라서 2026년 북한군의 러시아 전승 기념일 열병식 행진은 ‘초청’에서 ‘동맹’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2025년에는 북한군을 관람석 첫 줄에 앉힘으로써 ‘존중’과 ‘감사’를 표현했다면, 2026년에는 북한군을 행진 대열에 포함함으로써 러시아군과 함께 보이는 존재로 만들었다.

우호·협력에서 군사적 동맹으로

북한군의 전승 기념일 참여는 단순한 의전 행사나 우호국 군대의 방문으로만 보기 어렵다. 러시아 언론 보도에서 이 장면은 2026년 봄 이후 본격화한 러·북 군사 협력의 장기화 흐름과 연결된다. 특히 2026년 4월 말 벨로우소프 국방부 장관의 평양 방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접견, 북한군 국외 군사작전 기념 시설 개관, 그리고 5월 9일 북한군의 전승 기념일 열병식 참여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러시아 주요 언론들은 러시아 국방부와 북한 국방성이 군사 협력을 안정적인 장기 기반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2031년까지 러·북 군사 협력 계획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벨로우소프 장관이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언급한 점을 강조했다.

특히 《베도모스티》는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이 군사적 유대를 통해 더 강화되고 있으며, 2026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북한군 참전 기념박물관 개관식과 벨로우소프 장관의 방북을 군사 협력 심화 사례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전우들과 나란히 싸운 북한군의 용기와 헌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북한군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3]

여기에 북한의 대러 정치적 지지 표명이 결합된다. 《리아 노보스티》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벨로우소프 장관에게 북한이 앞으로도 러시아의 국가 주권, 영토 완전성,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군과 시민이 ‘정의롭고 신성한 투쟁’에서 승리하리라고 확신하며, 양국의 ‘동맹 관계’ 발전을 위한 러시아 지도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도됐다.[4]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러·북 군사 협력이 상징과 제도의 두 차원에서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4월 평양에서는 북한군의 국외 군사작전을 기리는 시설이 문을 열었다. 푸틴 대통령은 이 행사에 보낸 인사말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전투적 형제애’와 영광스러운 역사를 공유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날 북한이 러시아를 ‘결연하고 주저 없이’ 도왔다고 평가하며 새로 문을 연 기념 시설이 북한 장병들의 영웅성과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양국 국민의 우정과 단결을 보여주는 ‘가시적 상징’이 되리라고 밝혔다.[5] 이는 러·북 관계를 과거의 공동 기억, 현재의 군사 협력, 미래의 전략 동반자 관계로 연결하려는 인식을 보여준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사절단과 만나는 김정은 위원장 ⓒ《코메르산트》

러시아 언론 속 북한 이미지: 다각화와 내면화

최근 몇 년 사이 러시아 언론에 비친 북한의 이미지는 달라졌다. 과거 러시아 대중에게 북한은 주로 핵 문제, 제재, 폐쇄성, 한반도 긴장과 연결된 먼 나라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문화 행사, 박물관 전시, 관광 상품, 항공·철도 노선, 언어 교육을 통해 훨씬 더 가깝고도 구체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러시아인들이 북한을 접하는 통로와 장면이 대폭 늘어났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모스크바 승리박물관의 '어깨를 나란히' 전시이다. 이 전시는 1948년 북한과 소련의 외교 관계 수립부터 2024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까지를 다루며, 사진, 문서, 무기, 훈장, 군복 등 약 300점을 선보였다. 애초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막 후 3개월 만에 3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면서 3월까지로 연장됐다.[6] 이는 북한이 외교 기사 속의 추상적 대상을 넘어, 러시아 시민들이 '러시아와 함께한 전우'이자 '현재의 군사적 동반자'라는 서사 안에서 직접 접하는 대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통과 관광도 북한의 존재감을 키우는 통로가 되고 있다. 2025년에는 모스크바와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편이 77년 만에 처음으로 개설됐다. 공항 전광판에 '평양'이라는 목적지가 표시되고, 러시아 언론이 첫 비행과 체크인 장면을 보도하는 순간, 북한은 러시아 시민의 일상적

> "최근 러시아에서 북한은 문화 행사,
> 박물관 전시, 관광 상품, 항공·철도 노선, 언어 교육을 통해
> 훨씬 더 가깝고도 구체적인 모습으로 등장했고,
> 러시아인들이 북한을 접하는 통로와 장면도 대폭 늘어나"



러시아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 체크인 카운터에 표시된 평양행 항공편 ⓒ《리아 노보스티》

이동망 안으로 들어온다. 철도 관광도 같은 흐름에 있다. 러시아와 북한 간 여객·관광 철도가 확장되고 신규 노선이 열리면서 관련 기사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러시아인의 북한 인식이 군사·외교 뉴스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행 등 체험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경제적 차원에서도 북한은 러시아에 필요한 현실적 파트너로 설명된다. 《가제타.루》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주목하는 배경을 러시아 내 노동력 부족과 연결해 설명하면서, 특히 북한 노동자들을 규율 있고 성실한 집단으로 묘사했다.[7]

러·북 문화 교류도 북한 이미지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이다. 양국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문화 협력 계획을 체결하고 전시, 공연, 문화 행사, 인문 교류를 포함하는 제도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 9월에는 모스크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술전: 위대한 인민의 나라'가 개최되어 조선화, 판화, 도자기, 모자이크, 자수 등 다양한 북한 예술 작품이 전시됐으며, '같은 참호에서'와 '쿠르스크주 해방을 위하여' 등 러시아와 북한 군인의 단결을 묘사하는 그림도 함께 선보였다.[8] 2026년 4월에는 러시아 지리학회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가 기획한 첫 북한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 여기에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도 참여해[9] 북한에 대한 관심이 학술 연구를 넘어 관광과 체험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타스통신》은 2025년 11월 북한 학교에서 러시아어가 4학년부터 의무 학습 언어가 됐고, 2026년에는 김철주사범대학을 기반으로 북한에 러시아어 열린교육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10] 언어 교육은 러·북 협력이 일회성 교류나 성인 중심의 외교·문화 행사에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의 교육 과정 속에 제도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흐름을 모두 자연스러운 우호 확대만으로 볼 수는 없다. 러시아 전문 국외 독립언론인 《모스크바 타임스》는 2026년 4월 《타스통신》과 《조선중앙통신》의 정보 협력 협약을

> “러시아 언론 속 북한 이미지는 군사적으로는 러시아를 도운 전우, 역사적으로는 전승 기억과 연결되는 우군, 사회적으로는 여행과 교육의 대상, 경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파트너, 문화적으로는 새롭게 발견되는 예술과 전통의 나라로 나타나”

분석하고, 이 협약의 실질적 동기가 양국 정부의 서사 통제에 있음을 지적했다.[11] 이 시각은 러·북 협력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관계가 이념적 연대나 자연스러운 우의만이 아니라, 전쟁, 제재, 국제적 고립 속에서 형성된 전략적 계산의 산물이라는 점을 환기한다.

결국 러시아 언론 속 북한 이미지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군사적으로는 러시아를 도운 전우, 역사적으로는 전승 기억과 연결되는 우군, 사회적으로는 여행과 교육의 대상, 경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파트너, 문화적으로는 새롭게 발견되는 예술과 전통의 나라로 나타난다. 여기에 비판적 시각을 더하면, 현재의 러·북 협력은 단순한 친선의 확대라기보다 공식 서사, 실용적 필요, 전략적 계산이 함께 작동하는 복합적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2026년 북한군의 붉은광장 행진은 단순히 열병식의 한 장면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 안에서 북한이 외부의 관찰 대상에서 내부 서사의 일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

1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КНДР прошли по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на параде в честь Дня Победы.” https://ria.ru/20260509/raschet-2091499262.html

2 “Парад Победы завершился на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https://www.interfax.ru/moscow/1088635

3 “Россия и КНДР еще сильнее скрепляют свой союз военными узами.” https://www.vedomosti.ru/politics/articles/2026/04/27/1193172

4 “Ким Чен Ын заверил Россию в будущей поддержке со стороны КНДР.” https://ria.ru/20260427/kndr-2089080894.html

5 “Путин отметил боевое братство России и КНДР.” https://ria.ru/20260426/putin-2088997967.html

6 “Более 3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сетили выставку Музея Победы об истор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оссии и КНДР.” https://msk.dixinews.ru/news/vystavki/bolee-300-tysyach-chelovek-posetili-vystavku-muzeya-pobedy-ob-istorii-sotrudnichestva-rossii-i-kndr/

7 “Нужны ли нам рабочие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Да!” https://www.gazeta.ru/comments/column/mironova/22842553.shtml

8 “В Москве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искусств КНДР.” https://ria.ru/20250908/vystavka-2040523299.html

9 “Два взгляда на одну реальность: ученые и туристы рассказали, чем удивит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 2026 году.” https://rgo.ru/activity/redaction/articles/dva-vzglyada-na-odnu-realnost-uchenye-i-turisty-rasskazali-chem-udivit-severnaya-koreya-v-2026-god/

10 “В школах КНДР русский язык стал обязательным.” https://tass.ru/obschestvo/25747299

11 Anthony V. Rinna. “Russia and North Korea’s Propaganda Partnership Is Taking Shape.” https://www.themoscowtimes.com/2026/04/16/russia-and-north-koreas-propaganda-partnership-is-taking-shape-a92502